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이창구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or Expression for
an Effective Make-Up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明 善

碩士學位論文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or Expression for
an Effective Make-Up

위 論文을 패션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明 善

〈 目 次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메이크업의 개념	4
1. 메이크업의 정의와 역사	4
2. 메이크업의 역할과 종류	11
III. 메이크업과 색채	20
1. 색채의 정의	20
2. 메이크업 표현기법과 색채와의 상관관계	21
3. 메이크업 색채의 성질	27
4. 메이크업 색채 사용에 따른 얼굴의 형태 변화	30
IV.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연출 재료와 표현 방법	35
1. Base Make-up	35
2. Point Make-up	42
V. 메이크업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황별 색채 표현방법	52

1. 봄 메이크업	52
2. 여름 메이크업	53
3. 가을 메이크업	55
4. 겨울 메이크업	56
5. 클리어 이미지 메이크업	58
6. 귀여운 이미지 메이크업	60
7. 페미닌 이미지 메이크업	61
8. 글래머러스 이미지 메이크업	63
9. 고저스 이미지 메이크업	64
VI. 실제 메이크업 사진을 통한	
얼굴 이미지의 변화도	66
1. 얼굴 윤곽 수정 변화도와 여름 이미지 메이크업	67
2. 네추럴 톤 메이크업	71
3. 원톤 스타일 메이크업	75
4. 햅번 스타일 메이크업	79
VII. 결 론	83
참고문헌	85

〈 그림 목차 〉

(그림 1) 고대 이집트 여성의 눈 화장	6
(그림 2) 귀족 여인의 애교 점	8
(그림 3) 내추럴 메이크업	12
(그림 4) 웨딩 메이크업	14
(그림 5) 타임 메이크업	16
(그림 6) 원톤 메이크업	18
(그림 7) 색상환	22
(그림 8) 회색단계에 맞춘 12가지 순색의 명도단계	23
(그림 9) 빨강의 채도 단계	23
(그림 10) 색에 의한 팽창과 수축	29
(그림 11) 긴 얼굴의 수정 이미지	30
(그림 12) 네모난 얼굴의 수정 이미지	31
(그림 13) 삼각형 얼굴의 수정 이미지	32
(그림 14) 역 삼각형 얼굴의 수정 이미지	33
(그림 15) 립스틱 색상에 따른 이미지	44
(그림 16) 아이섀도의 명칭	45
(그림 17) 클리어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59
(그림 18) 귀여운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61
(그림 19) 페미닌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62
(그림 20) 클레머러스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64
(그림 21) 고저스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65
(그림 22) 실사이미지 일러스트 와 칼라 칩	66
(그림 23) 실사이미지 일러스트 와 칼라 칩	71
(그림 24) 실사이미지 일러스트 와 칼라 칩	75
(그림 25) 실사이미지 일러스트 와 칼라 칩	79

〈 사진 목차 〉

(사진 1) 유사 색 조화의 메이크업	24
(사진 2) 동류 색 조화의 메이크업	25
(사진 3) 보 색 조화의 메이크업	26
(사진 4) 피운데이션 바르는 요령	41
(사진 5) 파우더 바르는 요령	42
(사진 6) 아이섀도 바르는 방법	47
(사진 7) 눈썹의 형태와 이미지	50
(사진 8) 봄 메이크업	53
(사진 9) 여름 메이크업	55
(사진 10) 가을 메이크업	56
(사진 11) 겨울 메이크업	58
(사진 12) 클리어 이미지	59
(사진 13) 귀여운 이미지	60
(사진 14) 페미닌 이미지	62
(사진 15) 글레머러스 이미지	63
(사진 16) 고저스 이미지	65
(사진 17) 메이크업 시술 전	67
(사진 18) 메이크업 시술 후	68
(사진 19) 메이크업 시술 전	72
(사진 20) 메이크업 시술 후	73
(사진 21) 메이크업 시술 전	76
(사진 22) 메이크업 시술 후	77
(사진 23) 메이크업 시술 전	80
(사진 24) 메이크업 시술 후	81

〈 표 목차 〉

(표 1) 색조 제품 목록

35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메이크업은 인간의 몸을 매개체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색채 활용으로 신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다. 인간의 지각 반응에서 색채는 형태에 우선하며, 서로 다른 각 색채는 그 자체의 고유한 심리적 힘을 가짐으로써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신체에 가해진 색채는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 방법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되었다. 얼굴에서 표현되는 색채와 굴곡의 선들은 개인의 신분증이며,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에 색을 더하는 행위인 메이크업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상을 유지해 가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¹⁾

색이란 직감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마음상태나 외부적인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 있게 표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수단이 된다고 본다. 현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형태가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소비로, 다시 창조적 소비형태로 발전되었으며, 개방화 물결에 따라 생활방식이 국제화되었으며, 기술혁신과 정보화 사회, 인터넷의 사용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개방화와 함께 사고의 자유로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감성과 기호에 맞는 삶을 살아 나가려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풍요와 생존보다는 생활을 추구

1) 모터스라인, 현대자동차, 2002, p.72

하는 오늘의 신세대들은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정형이 없는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표현지향이 표면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도 차별화, 자기표현 지향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아를 중시한 개성으로 스스로의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류 색상은 과거의 차분한 색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화려한 칼라를 선호하고 있으며, 성구별이 없는 유니섹스모드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매체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소비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상품, 서비스라는 화려한 현실적 측면을 사용하여 자기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보여 지느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인 욕구 만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생활은 점점 감성화, 개성화, 칼라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칼라화한 욕구에 대해 한 가지 색으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기준을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칼라의 선택은 이미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²⁾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효과적으로 잘 조화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각각의 색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배색하고 조화 있게 표현하느냐에 그 메이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색채의 중요성은 크다고 보겠다. 메이크업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색채감각을 잘 갖추고 있다면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나아가는데, 더없이 중요한 감각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이크업에서의 색채 이미지 연출과 표현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색채의 효과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색채의

2) 류영미, 이미령,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미용학회지제6권 1호, 2000, p.68.

사용을 제안함으로써 개개인의 이미지에 맞는 효과적인 메이크업 색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이미지 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적인 색채이론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와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 색채가 메이크업에 적용되는 사례를 계절별로 분류하여 이론과 함께 사진자료와 도표, 칼라 칩을 이용해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적용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제 2장은 메이크업의 개념 편으로 메이크업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메이크업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설명과 , 사진, 그림, 칼라 칩 등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제 3장은 메이크업과 색채의 상관성에 관한 부분으로 색채의 정의, 메이크업과 색채의 조화와 성질,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제 4장은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연출 재료와 표현방법에 대해 피부, 눈썹, 아이 메이크업, 입술메이크업을 위한 메이크업 색채연출 재료와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5장과 6장은 위의 이론들을 적립하는 단계로 메이크업 이미지에 따른 계절별 메이크업의 색채표현과 상황별 이미지 표현, 실제 이미지 메이크업 사진을 통한 색채 이용도에 대해 사진자료와 컬러 칩, 일러스트를 이용해 효과적인 메이크업의 색채 이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7장은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II. 메이크업의 개념

1. 메이크업의 정의와 역사

메이크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비롯되어 온 것으로서 영어의 페인팅 (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 (maquillage)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천적인 자신의 용모를 그 시대내의 필요에 의해 선별, 선호, 선택된 미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Make-up)이라고 하는 화장형태의 호칭은 미국의 헐리우드(Holly wood)전성기로부터 기인하는 데 이보다 앞서 17세기 초기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슈(Richard crash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고 이보다 앞서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Paint)라 불렀다. 프랑스어인 마꾸아쥬(maquillage)는 원래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용어 였으며 투알레트(towalet)는 1540년경 영국에 전해져 토일렛(toilet)으로 변한말로써 화장을 포함한 치장전반을 가리킨다.³⁾

현대에 들어서면서 메이크업의 의미는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 자기답게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의도적 표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이크업의 양상은 고대의 종교, 정치, 경제, 사상, 철학, 풍습 등의 사회적 조건들의 변화를 주어 왔으며 민족의 피부색, 기후, 풍토 등의 자연조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메이크업의 역사는 그 시대의 문화적 중심이 되었던 국가를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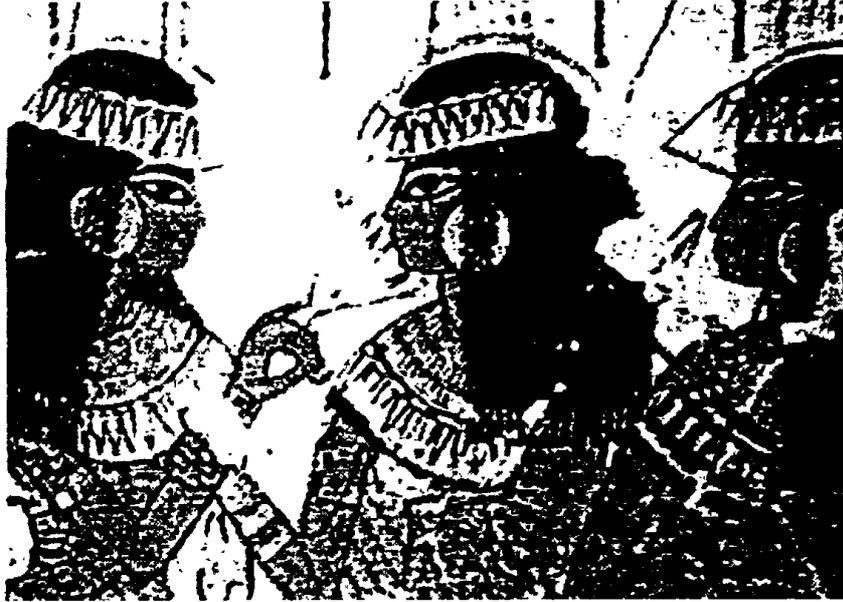
3)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꾸아쥬예술, 청구문화사, 2001, p.8

로 하여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의 척도가 국력을 상징하였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인접국가의 문화적 양상에 동화되어 갔다. 사학자들은 화장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인류의 생존과 동시라고 귀결된다. 즉 원시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구석기 말에는 사냥을 할 때 화를 면하기 위한 주술의 의미로 붉은색의 안료를 피부에 발랐다.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대인들에게는 늘 위협이 따랐다. 붉은색은 화를 막아주는 색깔이었다. 화장의 목적이 목숨을 지키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경우 사회적 계급이나 성별을 떠나서 메이크업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세련되었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부유한 가정의 여성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노예를 시켜서 온몸에 향유(香油)를 바른 다음 긴 시간을 소비해서 정성 들여 화장을 하였다.⁴⁾ 여자들의 눈 화장은 시나이 반도에서 구해지는 공작석에서 녹청색 화장료를 이용해 그렸는데 아이라인은 짙고 강하게 연출하였다. 이것은 곤충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⁵⁾ 그 이외에는 분, 불연지, 입술연지 등도 주로 애용되었는데 입술은 홍색, 뺨은 분홍색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중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손톱에는 식물성 염료인 헤나(henna)를 써서 진한 오렌지색으로 매니큐어를 하였다.⁶⁾ 머리의 경우 종교적인 의식과 청결함을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짧게 깎았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남녀를 막론하고 가발을 사용하였는데 가발의 색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 많고 때로는 진한 청색, 또는 황금색으로 물들이기도 했다.(그림 1 참조)

4) 김희숙, 「Make-up과 패션」, 수문사, 1996, p.117.

5) <http://www.openedu.co.kr/opendata/skin/makeup1/1-5.html>

6) 김희숙,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17.



(그림1)고대 이집트 여성의 눈 화장7)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보이는 강조된 형태의 치장 형태가 아닌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에서 미를 표현하고 자 했는데 모발의 경우 여성은 자연스런 금발을 일반적으로 풀어 내리거나 목에서 자유롭게 묶는 간단한 형태가 유행했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곁을 이마 위로 내리는 형태, 앞머리의 곁을 뒤로 곱슬 거리게 빗어 넘기는 형태, 앞머리를 짧게 단발하고 뒤는 길게 타래 머리의 형태, 귀와 같은 길이로 둥글게 자른 형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금속 밴드나 은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머리의 모양이 신분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근동(近東)의 여러 나라에서 갖가지 화장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장술이 급속히 발달하였고,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화장은 오전 중에 노예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로마의 목욕탕은 클럽 하우스를 방불케 하여 귀족 남자들은 증기탕, 향유, 마사지, 향수 등을 즐겼다.8) 로마인들은 흰 피부를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피부를 희게 가꾸는 일 뿐만 아니라

7) 김영경,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논문, p.8.

8)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1997, p.26.

메이크업 방법에서도 얼굴과 함께, 목, 어깨, 팔 까지도 백납 분(white lead power)으로 잔뜩 칠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Kohl(kohl)은 역시 눈을 강조하기 위하여 칠해졌고 식물성 염료와 적토는 뺨과 입술에 매력적인 색과 윤기를 주었다. 특히 로마의 여인의 화장은 붉은 색조가 주를 이루어서 붉은색의 루즈(rouge)를 양 볼과 입술에 발라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변화시켰다.⁹⁾

중세에는 그리스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회, 문화현상이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색조 화장이 신에 대한 죄악으로 간주됨으로서 메이크업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11~13세기에 걸쳐 치루어진 십자군 전쟁은 예술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팔레스타인으로 부터 귀향한 병사들은 그들의 부인을 위하여 향료와 마스크라(Maskhara) 등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돌아 왔다. 키프러스를 점령했던 병사들은 또 진귀하고 향기 좋은 꽃과 향료를 선물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아직도 여자의 화장에 대해 엄격하였다.¹⁰⁾ 이 시대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흰 피부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흰색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검정, 흑갈색 등의 어두운 색상들로 머리카락, 눈썹 등을 장식하였다.

14세기 중반 경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그리스도 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의 화장이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 시대 메이크업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흰 피부에 대한 동경과 집착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귀족들은 돈과 시간적 여유가 가져온 방탕으로 인하여 귀족들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불품없게 된 얼굴의 결점을 메이크업으로 감출 수 없게 되자 이에 따라 남, 여 모두에게 패취 (patch:

9) Di Biggse Maxi Meah, Art of Make-up, 1980, p.8.

10) 위의 논문, p.8.

애교 점)의 사용이 대단히 유행하게 되었다.¹¹⁾

18세기에는 얼굴에 분을 많이 바르는 것이 유행하여, 이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분들이 많이 만들어 졌으나 말에 가서는 백납분이나 벨라도나(Belladana), 알카렛 등의 독성이 많은 메이크업 제품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 그 대신 붉은 포도주의 찌꺼기나 장미 꽃잎에서 추출된 붉은색 등의 자연적인 색채용품의 메이크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8세기의 여자들은 머리모양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이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1760년경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 졌으며 그 장식이 높이 쌓여 졌다. 화장법은 백발의 유행과 더불어 얼굴은 하얗게, 눈썹은 검게, 혈관은 푸르게 묘사하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였으며, 18세기의 과장된 머리모양과 화장은 복식과 함께 변화를 가져왔다.¹²⁾ 메이크업의 양상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이 인식되면서 청결함이 아름다움의 기본 조건으로 되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귀족 여인의 애교 점¹³⁾

19세기 초기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고 얼굴에 백납 분을

11) James Laver,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1979, p.109.

12) 한명숙, 「마귀아주예술」, 청구문화사, 1999, p.28.

13) 위의 책, p.28.

사용하는 정도로 메이크업은 약해 졌으며 이전까지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메이크업의 양상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만이 아니고, 서민층 여성들에게도 흰 피부와 루즈의 치장이 널리 보급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유형 또한 다양해진다. 메이크업 유형을 보면 1930년대까지는 얼굴색은 밝게, 눈썹은 가늘고 진하게 그렸으며 아이메이크업은 하이라이트를 매우 강조하고 아이 홀 메이크업으로 입체감을 나타냈으며, 검정 색과 흰색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아이라이너를 길게 연장시켜 섹시한 느낌을 강조했으며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도 했다. 볼 터치는 음영을 브라운 계열로 강하게 강조하여 볼이 들어가고 광대뼈가 나와 보이도록 하고 입술은 둥글게 볼륨 감 있게 그렸다.¹⁴⁾

1970년대까지는 눈 화장에 초점을 두고 입술은 옅은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900년대 말로 갈수록 메이크업과 패션의 변화 형태는 아주 빨라져서 10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었던 패턴이 한해, 한 계절이 다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감은 리 사이클과 내추럴리즘을 강조하여 패션의 색상, 소재,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인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다.

메이크업은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 특수 계층에서만 사용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화장 형태는 바뀌기 시작했다. 즉, 종교, 정치, 경제, 사상, 철학, 풍습 등의 사회적 조건들이 메이크업 양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하나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른 부분의

14) 김희숙, 「Make-up과 패션」, 수문사, 1996, p.44.

색이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 가며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메이크업이다.¹⁵⁾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의 본래 의미는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좋게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명의 산물로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오늘날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인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 고유미와 개성미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¹⁶⁾

15) 왕석구, 「톡톡 튀는 메이크업」, 도서출판 진리 탐구, 1999, p.21.

16) 하병조, 「화장품 학」, 청구 문화사, 1999, p.24.

2. 메이크업의 역할과 종류

인간의 외모는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인간의 욕망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는 인간의 생태적 본능 중의 하나로 이를 표현하고자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아를 아름답게 가꾸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 특유의 화장이란 표현양식을 사용하고 인간이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는지를 밝히는 일은 고대와 현대의 화장 형태가 다른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설(通說)에 의하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필요성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분,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졌다.¹⁷⁾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미화 효과를 줄 수 있는 물리적 기능과, 메이크업은 첫째로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개성 있는 화장을 연출함으로써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미적(美的) 역할 기능을 들 수 있다.¹⁸⁾ 둘째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는 변장이 아니라 화장을 통하여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적 역할 기능을 하며 셋째로, 화장행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면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인물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방식, 가치추구 방향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심리적 역할 기능을 갖기도 한다. 메이크업의 역할은 인간의 삶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윤택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정서적인 기능들을

17) 강혜순, 메이크업에 있어 시즌 컬러의 유행 경향분석, 한성대학교 석사 논문, 2002, p.17.

18) 김봉인, 화장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p.25.

수행한다.

2) 메이크업의 종류

메이크업은 크게 화장과 분장의 큰 분류와 작은 분류로 아트 메이크업, 뷰티메이크업으로 나누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뷰티 메이크업 부분만으로 축소시켜 다루고 있다. (그림. 3,4,5,6 참조)

(1) 내추럴 메이크업



(그림3) 내추럴 메이크업



사용색상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부드럽고 평화로우며, 친밀하고 소박해보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으로 평소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톤은 연하고 밝은 톤인 라이트(light)나, 라이트 그레이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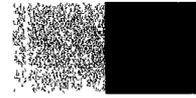
(light grayish) 톤이다.

- ① 피부 : 내추럴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피부의 표현이므로, 잡티나 피부 결점이 눈에 띈다고 베이스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것은 내추럴 메이크업에 절대 금물이며 컨실러를 이용해 결점을 커버해 주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한다.
- ② 눈썹 : 브라운 계열의 케익 타입 색도를 브러시에 묻혀 살짝 살짝 메워준다.
- ③ 눈 : 핑크계열이나 옅은 브라운 계열의 아이세도를 이용해 아이홀 부분에 펴 발라 주고 진한 브라운을 이용해 쌍꺼풀 부분에만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며, 눈 아래에도 가볍게 연결한다. 눈썹 뼈의 하이라이트는 연한 인디언핑크 색으로 라인이나 색상에 경계가 두드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 준다. 아이라인은 브라운 펜슬로 속눈썹 사이를 매우듯이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 ④ 입술 : 진하지 않은 핑크에 베이지 브라운 계열을 섞어서 바르는데 립 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주고 브러시로 부드럽게 펴준 후 베이지, 갈색, 핑크, 브라운 색 등으로 안을 메워 준다.
- ⑤ 볼 : 인위적으로 윤곽을 수정하거나 진한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적으로 은은한 느낌이 되도록 가볍게 블러셔를 넣어준다. 핑크에 베이지를 섞어 볼 뼈 부분에 삼각형 느낌으로 살짝 바른다.

(2) 웨딩 메이크업



(그림4) 웨딩 메이크업



사용색상

예전에는 신부 화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진하고 두꺼운 화장을 연상했지만 근래에는 신부의 개성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웨딩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피부 표현으로 얼굴의 결점을 확실히 커버하는 한편 예식이 끝날 때까지 화장이 곱게 지속 되도록 해야 한다. 요즘에는 예식장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 야외에서의 예식도 많은 만큼 장소에 맞는 드레스의 선택과 메이크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신부의 피부 상태와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되 얼굴과 드레스 분위기를 고려하여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 ① 피부 : 메이크업 베이스는 그린이나 청색을 바른다. 파운데이션은

신부의 피부 톤에 맞추되 핑크 계로 목까지 발라준다. 일차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스킨 커버나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이중 커버해 준다. 이때 신부의 피부가 맑고 곱다면 리퀴드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충분하다. 피부 잡티는 컨실러를 사용하여 감춰주되 너무 두껍지 않게 피부 표현을 한다. 하이라이트와 셰이딩으로 윤곽을 잡아주는데 특히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조한다. 파우더는 핑크와 투명 파우더를 퍼프로 한번 눌러주고 브러시로 다시 한번 터치해 준다.

- ② 눈썹 : 머리카락 색에 맞춰주되 밤색 계열로 신부의 눈썹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특히 눈썹 산에서부터 꼬리 쪽을 약간 더 진하게 해 주어야 사진 촬영 시 눈썹선이 잘 표현된다.
- ③ 눈 : 아이보리나 흰색 색도로 베이스를 깔아 준 다음 눈두덩에 연한 브라운으로 펴준다. 눈썹 뼈에는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아이 홀 부위는 보라색으로 펴 발라준다. 이때 펄 감이 있는 색도를 이용하면 좀 더 화사하게 표현된다. 아이라인은 핑크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언더라인을 2분의 1정도까지 발라주는데 눈이 선명하지 않으면 갈색 펜슬로 살짝 터치해 준다.
- ④ 입술 : 핑크빛 계열로 입술 라인의 둥근 선을 살려서 그려주되 반드시 립 라이너로 먼저 윤곽을 그려준 후 입술 안쪽에 한번 더 발라 준다.
- ⑤ 볼 : 블러셔는 핑크계 브라운으로 관자놀이부터 연결하여 볼 뼈 부분에 둥글게 발라 화사하게 표현하고 연한 브라운 색으로 셰이딩을 넣어준다.

(3) 타임 메이크업(Day메이크업)



(그림5) 타임 메이크업



사용색상

Day메이크업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청결해야 한다. 낮에 햇빛 아래서 보여 지는 화장이므로 진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개성을 살리는 메이크업이 좋다. 대체로 펄이 없는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며 의상 색에 맞추는 것이 무난하다.

- ① 피부 : 피부 톤과 유사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얼굴 전체의 윤곽 수정은 아주 가볍게 해 준다.
- ② 눈썹 : 눈썹은 모델의 눈썹 형에 맞추어 회갈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려 준다.
- ③ 눈 : 의상 색과 유사하거나 부드러운 보색 대비를 이루는 색도를 이용해 전체 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려 주는데

이때 색도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그라데이션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라인도 너무 두껍게 그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입술 : 의상과 아이색도의 색상에 맞는 립스틱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그려준다. 수정이 필요할 때는 윤곽을 강조하지 말고 정교하게 표현한다.
- ⑤ 볼 : 볼 뼈 위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되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원 톤 메이크업

원 톤 메이크업은 하나의 색이 화장을 지배하는 컬러가 되는 메이크업으로 한 가지 주조 색상을 정하여 눈과 입술에 색조와 명암을 조절하면서 발라준다. 주조 색으로 쓰이는 컬러의 느낌과 이미지가 그대로 표현되며 하나의 색으로 메이크업하기 때문에 대개 친근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타난다.



(그림6) 원 톤 메이크업



사용색상

- ① 피부 : 레드를 섹시하게 표현하는 데는 윤기 나는 검은 피부가 제격이다.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 톤을 약간 가무 잡잡하게 표현하되 두꺼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투명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한다. 이때 상큼하게 튀어 보려면 펄 파우더를 사용해 얼굴 중앙부위 만을 발라준다.
- ② 눈썹 : 암갈색 이용해 기존 모델의 눈썹형태대로 자연스럽게 그

려 준다.

- ③ 눈 : 화이트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 준 다음 옅은 핑크로 속눈썹 윗부분과 아이 홀 부분을 바른다. 짙은 회색이나 암 갈색으로 강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고 아이라이너를 가늘게 그려주어 선명한 눈매를 만들고 짙은 검정 마스크라를 이용해 볼륨감을 준다.
- ④ 입술 : 짙은 와인 색 립 라이너로 입술 선을 깨끗하게 정돈한 후 와인 색을 라인과 자연스럽게 혼합되도록 잘 펴 바른 다음 립스틱은 진하게 발라주되 중앙에만 살짝 립글로스로 윤기를 준다.
- ⑤ 볼 : 입술 색이 진하면 볼 화장은 옅게 하는 것이 좋다. 붉은기가 너무 강하지 않은 브라운으로 웨이딩과 연결하여 발라 준다.

Ⅲ. 메이크업과 색채

1. 색채의 정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눈을 뜨고 있는 한 색을 지각한다. 가장 흔한 물체의 색에서부터 하늘의 색, 불빛의 색, 무지개의 색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채를 경험하고 인지하면서 지속적인 경험이 더 해 감에 따라 밝은 색, 어두운 색 등의 색감의 차이를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색채(color)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 투과, 흡수될 때 눈의 망막과 여기에 따르는 시신경의 자극으로 감각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색은 사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빛의 특성이며, 색이 있는 사물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된다.¹⁹⁾ 그리고 뉴턴은 삼각형의 프리즘을 사용하여²⁰⁾ 태양광선을 스펙트럼(spectrum)의 색으로 분산시켰는데 이때 분산되어 나타나는 색을 광원색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직접적으로 물체가 발광하지 않고 빛을 받아서 반사에 의해 나타나는 물체의 색을 색채라 한다. 광원색은 방출되는 빛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만 물체색은 물체의 반사하는 특성 뿐 아니라 광원에 의해 반사되는 빛의 종류가 달라져 여러 가지 색을 띠게 된다. 일정한 조명 하에 놓인 물체는 보는 사람의 생리적 상태, 경험 및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다른 색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색이 광원과 물체, 인간 감지력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다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²¹⁾

메이크업에서의 색채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온다. 색채는 우리의 정서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착용자의 기호, 개성,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를 표현할 뿐

19)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 1995, p.49.

20) 고을환, 「디자인을 위한 색채 계획」, 미진사, 1987, p.22.

21) 박연희,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2, p.6.

아니라 심리적 효과, 감정효과, 시각적 효과에 의해 사람의 성격, 특성,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색을 조화 있게 사용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고 그 색상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2. 메이크업 표현기법과 색채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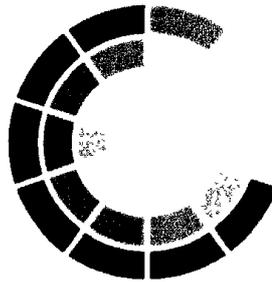
색채는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메이크업이 인간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색채는 이 메이크업 자체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 색채의 조화는 기본 바탕 즉 피부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선호도와 혐오 등의 주관적 감성 반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된다. 특히 각각의 인종이 지닌 바탕 즉 피부색의 차이에 의해 색채의 조화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색은 그 자체의 성질로 써도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메이크업으로써 얼굴에 표현 되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색의 3속성과 색채의 조화에 따른 메이크업을 살펴본다.

1) 색의 3속성

(a) 색상(Hue)

색을 구별하기 위한 색의 명칭으로 색의 이름으로 수많은 색을 구별하는데, 이처럼 감각에 따라 식별되는 색의 종별, 즉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색채의 명칭을 색상이라고 한다. 성질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색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등글게 나열한 것을 색상환 또는 색 환이라고 부른다. (그림 7 참조)



10색상판

(그림7) 색상환

(b) 명도(Value Ligh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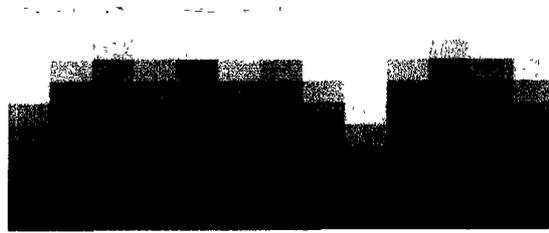
색채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 적색에 흑색과 백색을 더하여 핑크 색과 벽돌 색을 만들었을 때, 적색보다 핑크 색은 더 밝은 색이며 더 어두운 색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비교된 두 색상 중에서 빛의 반사율이 높은 쪽이 밝은 것이다. 가장 흰색과 검은색을 양 끝단에 놓고 그 사이에 명도 차를 감각적 척도에 따라 균일하게 몇 단계의 무채색 순으로 나타낸 색 견본을 무채색스케일 또는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이라고 하며 명도의 기준 척도로 사용된다. 가장 어두운 검정을 명도 0으로 하고 가장 밝은 흰색을 명도 10으로 하여 11단계로 나누어서 명도를 판단하고 있다.

색의 3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는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색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색상이 아니라 명도이다. 일반적으로 색상은 150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명도는 200단계까지 구분되고, 채도는 20단계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색채를 선별하고 배색하는 조형작업에서는 눈에 가장 민감한 명도단계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후에 색상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슷한 명암단계의 다른 색상이 주는 느낌은 큰 차이가 없을 지라도, 같은 색상에 명암이 다른 경우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즉 검정에 가까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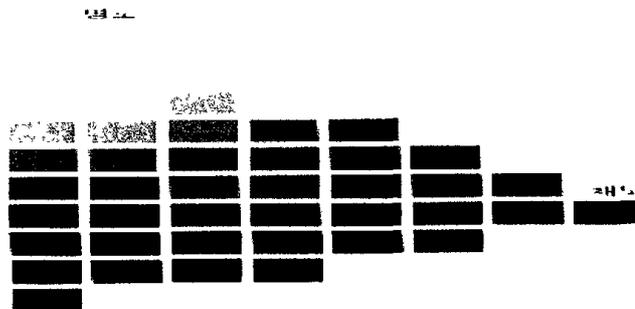
두운 빨강과 어두운 파랑이 주는 느낌이 비교적 유사한 것에 비하여, 밝은 빨강과 어두운 빨강이 주는 느낌은 전혀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색상에서 파생된 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림 8 참조)



(그림8) 회색단계에 맞춘 12가지 순색의 명도 단계

(c) 채도(Chroma, Saturation)

색의 순수한 정도, 색채의 강약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색은 순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으며, 다른 색상을 가하면 채도가 낮아진다. 색채혼합을 할 때 여러 색을 섞으면 섞은 만큼 채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감법혼색에서 3원색을 혼색하면 검정 색이 되는 것처럼 색채의 여러 색상을 많이 혼색할수록 그 색채는 무채색으로 변한다. 결국 낮은 채도는 무채색에 가장 가깝게 되는 것이다. 채도 번호는 1에서 14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색 입체의 중심축인 무채색의 축에서 가까울수록 채도번호는 낮으며 멀어질수록 채도 번호는 점점 높아진다. 모든 색상은 채도 단계가 다른데, 가장 순도가 높은 빨강과 노랑이 14단계를 가지며, 초록과 청록의 훨씬 짧은 8단계 정도가 된다. (그림 9 참조)



(그림9) 빨강의 채도 단계

2) 색채 조화의 원리

(a) 유사색상의 조화

유사색상의 조화는 색상환에서 양옆에 있는 색과의 조화 계획이다. 이 경우는 색의 속성과 특성이 어미가 같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므로 유사의 원칙에 의해 조화된다. 예를 들어 주황색과 빨간색은 주황이 빨강과 노란색의 혼합이므로 어미인 빨간색을 공통 부모로 하고 있어서 조화가 잘 되는 원리이다. (사진 1 참조)



(사진 1) 유사 색 조화의 메이크업²²⁾

22) 위의 이미지 사진은 본인이 임의대로 제작한 것임

(b) 동류색상의 조화

동류성의 원칙에 의해 잘 조화되는 색상으로 색상의 차이는 없고 명도와 채도의 차이만 있는 색의 배색 방법으로 메이크업에서는 보라색계통의 아이섀도를 발랐다면 분홍색계의 립스틱과 불연지를 이용해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동류 색 조화의 원리로 자연스러우면서 무난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류색상의 조화는 같은 색의 무채색과의 혼합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므로 통일성이 강조됨으로 자연 조화가 잘 되는 색상 조화이다. (사진 2 참조)



(사진 2) 동류 색 조화의 메이크업

(c)보색의 조화

보색조화는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반대 색상의 조화로 강한 느낌과 선명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색의 아이새도와 빨강색의 입술을 들 수 있는데 서로간의 보색효과로 인해 강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때 순색계열의 보색은 지나치게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명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낮추어서 부드러운 조화를 연출해 주기도 한다. (사진 3 참조)



(사진 3) 보색 조화의 메이크업

3. 메이크업 색채의 성질

색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색채는 인간의 5감각인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 시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다른 감각을 동시에 느껴지게 하는 효과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색은 물리적 착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심리적인 효과이므로 그것은 우리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색에 무의식 적이며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에 생겨나는 효과이다.²³⁾

1) 색의 온도감

사람이 색의 역할 중 가장 쉽게 느끼는 감정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과 차갑게 느껴지는 색의 온도 감이다. 색 그 자체가 물리적인 온도를 동반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빨강 색이나 주황, 노랑 색 등을 보면 따뜻하게 느끼고, 파랑, 청록 등을 보면 차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컬러 이미지 스케일에서 워름(Warm)과 쿨(Cool)로 구분하여 색채 이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색의 온도 감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파랑 하양 등의 순서로 파장이 긴 것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파장이 짧은 쪽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연두, 녹색, 보라 자주 등은 때로는 차갑게도 때로는 따뜻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색상들은 중성색이라고 부르며, 색의 온도 감은색의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색상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메이크업에서는 색의 온도 감을 더운 여름에는 파랑, 녹색 등의 한색을 이용해 시원해 보이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빨강, 주황, 노랑 등의 색을 이용해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활용하고 있다.

2) 색의 중량감

색채에의 중량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도로 명도의 차이가

23) Marian L, Davis, Visual desing in dress, prentice-Hall, Inc, 1980, pp.142-143.

무게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검정이 가장 무겁게 보이고 하얀 색이 가장 가벼워 보이게 된다. 이때 색상도 무게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랑이나 빨강이 보라나 주황, 녹색보다도 가볍게 느껴지고, 난색계열은 가벼운 느낌을 한색계열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파운데이션의 양에 따라 피부가 두껍고 탁해 보이며 아이메이크업과 입술 메이크업의 색 사용선정과 면적에 따라 전체적인 느낌이 무거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포인트를 주어 무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3) 색의 진출과 후퇴

검은색 위에 황색과 청색을 나열하여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황색 쪽이 청색보다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경우 황색은 진출성이 있고 청색은 후퇴성이 있다고 한다. 배경색 보다 앞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색을 진출색(進出色)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색을 후퇴색(後退色)이라고 말한다.

메이크업에서는 아이새도를 바를 때 아이 홀 부분에 어두운 색조를 발라 눈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과 코를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콧대에 하이라이트를 넣는 것, 그리고 얼굴 전체에 윤곽을 수정하는 것 등이 색의 진출과 후퇴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 난색계의 색들이 한색계의 색보다 진출성이 높고 채도가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진출성이 높게 보인다.

4) 색의 팽창과 수축

색은 같은 모양과 면적이더라도 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져 보이는데 명도가 높을수록 면적이 더 커 보이며 명도가 낮을수록 면적이 작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얼굴형을 수정하기 위해 어두운 파운데이션과 분을 사용하는 것이 색의 팽창과 수축의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 넓어 보이는 부분은 어두운 색조를 바라 작게 보이게 하고 좁은 부분은 밝은 색조를 발라 팽창되어 보이게 함으로써 이상적인 얼굴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이메이크업에서는 아이라인의 선의 두께와 면적에 따라 같은 눈이라도 훨씬 커보이게 할 수 있으며 입술 메이크업에서는 립 라인의 색상과 두께의 강약에 의해 입술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작 제시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림 10 참조)

기본입술형태



색상에 의한 팽창



입술 라인 변화를 통한 확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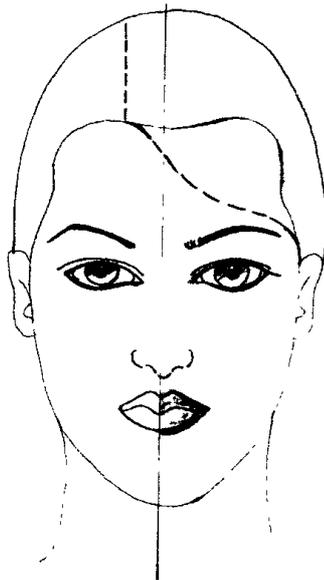
(그림 10) 색에 의한 팽창과 수축

4. 메이크업 색채 사용에 따른 얼굴의 형태 변화

인간의 얼굴형태는 다양하며 이 다른 형태들의 얼굴을 그 시대의 미인형, 달걀형에 맞게 보이려 하는 욕구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우리는 메이크업 색채 연출 재료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변화시켜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예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얼굴형에 따른 변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제작한 일러스트를 참고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얼굴로써 이상적인 얼굴형의 형태인 달걀형에 가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색채 재료를 이용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1) 긴 얼굴의 수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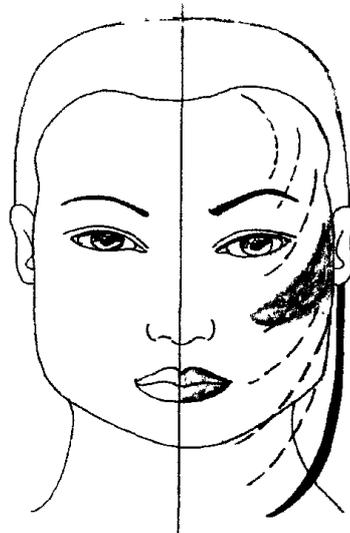
- 피부 : 기본 베이스를 발라 준 후 T존 부위는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이마와 턱 부분에는 색도를 주어 얼굴의 길이를 줄여준다.
- 아이색도 : 전체적으로 연한 톤의 색을 바르고 눈 꼬리 쪽 만을 짙

은 톤으로 강조해 눈이 좀 더 넓어 보이도록 한다.

- 눈 썩 : 되도록 일자형으로 그려 가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검은 색 보다는 진한갈색으로 새도나 펜슬을 이용해 그려 준다.
- 입 술 : 입술모양은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형으로 그리되 너무 둥글거나 크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볼 : 갈색이나 주황색을 이용해 광대뼈를 중심으로 가로로 폭 넓게 발라준다.

2) 네모난 얼굴형

광대뼈가 다른 형보다 발달 됐으며 얼굴의 폭과 길이가 거의 같은 것이 특징으로 밝은 색 파운데이션은 얼굴을 길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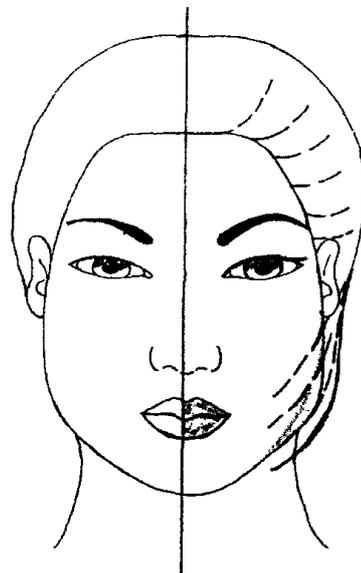
(그림 12) 네모난 얼굴의 수정 이미지

- 피 부 : 건강한 피부색 표현에 중점을 둔다. 턱의 각진 부분만 어두운 색으로 발라주고 중앙부분은 밝은 피부색으로 둔다. 수정부분의 어두운 색상을 바를 때는 볼 화장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를 줄여준다.

- 아이새도 : 눈 화장은 눈썹꼬리와 직선이 되도록 하며 눈 꼬리 쪽을 강조하여 약간 치켜 올리듯이 발라 준다.
- 눈 썹 : 눈썹은 둥글게 하여 완만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눈썹의 간격을 약간 벌어지게 그려도 좋다.
- 입 술 : 입술모양은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형으로 그리되 너무 둥글거나 크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볼 : 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폭넓게 발라주며 색상은 주로 붉은 갈색을 이용한다.

3) 삼각형 얼굴

이마가 좁고 턱뼈가 길어 보이는 형으로 동양인 보다는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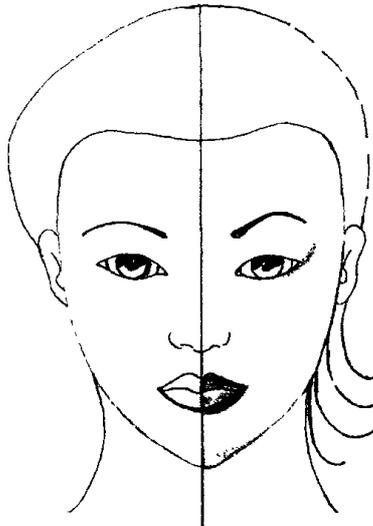
(그림 13) 삼각형 얼굴의 수정 이미지

- 피부 : 볼 뼈 위가 좁아 보이므로 이 부분은 밝은 색을 발라주고 상대적으로 아래턱 부분은 나와 있으므로 좁아 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색으로 발라준다. 이때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게 잘 그라데이션 해준다.

- 아이새도 : 눈 화장은 눈 꼬리 쪽을 강조하여 약간 치켜 올리듯이 발라 준다.
- 눈 썩 : 눈썩은 중앙에서 조금 길게 그려 준다.
- 입 술 : 입술모양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리되 너무 늘려 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볼 : 볼 밑에서 어두운 색으로 다시 한번 가로 방향으로 칠해 준다.

4) 역 삼각형 얼굴

아시아인에게 많은 형으로 이마는 넓고 튀어 나왔으며 귀밑부분부터 턱뼈까지 삼각으로 뾰족하므로 뾰족한 턱을 넓게 보이게 해 주어 이마와 턱의 간격을 좁혀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림 14) 역 삼각형 얼굴의 수정 이미지

- 피 부 : T존과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이마 양옆과 턱에 색도를 준다.
- 아이새도 : 베이지 칼라로 눈두덩 이에 퍼준 뒤 중간 베이지로 윗 눈꺼풀을 직선의 느낌으로 칠해주고 붉은 갈색이나 짙은

보라색으로 액센트를 준다.

눈 찻 : 눈찻은 진회색으로 눈찻길이의 1/2 에 눈찻 산을 그리거나 눈찻 산을 둥글게 처리하여 준다.

입 술 : 연갈색으로 입술 선을 깔끔하게 그린 뒤 짙은 밤색 립스틱으로 채워준다. 길이와 넓이를 늘려 그려서 입술이 좁아 보이는 것을 막아준다.

볼 : 광대뼈 약간 위쪽에 눈동자 바깥부분부터 좁게 발라준다.

IV.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연출 재료와 표현 방법

메이크업의 색을 표현하는 재료를 흔히 색조제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초제품을 사용 후 얼굴이나 손톱 등 신체에 도포하여 색채감을 부여함으로써 피부색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기초제품으로 커버 할 수 없는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한층 더 화장을 메이크업 시켜주는 기능을 가졌다. 색조 제품은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하거나 기미,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Base Make-up)과 입술, 눈, 볼이나 손톱 등에 국부적으로 사용하여 혈색을 돋보이게 하고 입체감을 부여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up)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⁴⁾ (표 1 참조)

색채 (Make-up)	Base Make-up	파운데이션(크림상, 액상, 고형상등)
		파우더 류(크림상, 고형상, 분말상등)
	Point Make-up	립스틱 류(립스틱, 립 로스, 립라이너등)
		볼연지 류(체크퀼러)
		아이 류 (아이섀도,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펜슬등)

(표 1) 색조제품 목록²⁵⁾

1. Base Make-up

24)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담계, 1997, p.430.

25) 위의 책, p.430.

1) 파운데이션 류

피부가 곱고 깨끗하면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가 돋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피부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드름 자국, 넓어진 모공, 기미나 반점과 같은 갖가지 흠이 생긴다. 이러한 결점들을 감추고 피부 톤을 조절하여 건강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은 눈으로 보고는 진짜 색깔을 알 수 없다. 파운데이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직접 얼굴에 발라 보고 선택해야한다.²⁶⁾

파운데이션은 수분과 유분, 파우더, 그리고 색조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각 성분의 혼합 상태와 비율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수분이나 유분을 베이스로 하여 나머지 성분을 용해시킨 유화 형 파운데이션, 오일왁스에 색소를 분산시킨 분산 형 파운데이션, 수분과 유분을 혼합한 후 고형화시킨 파우더 형 파운데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²⁷⁾

(a)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름 그대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촉촉하고 투명 감 있는 파운데이션이다. 우리 피부에 가장 가까운 유액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과 밀착감이 우수하며 피부 전체에 신속히 퍼 바를 수 있어 자연스럽고 가벼운 메이크업에 좋다. 크림타입에 비해 커버력이 떨어지므로 컨실러 등으로 피부 잡티를 감춘 뒤 사용하면 아름다운 피부 결을 살릴 수 있다. 사진 메이크업이 아닌 내추럴 메이크업을 할 때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물기가 있는 스펀지로 펴주면 보다 얇게 발라지며 지속력이 높아진다.

(b) 크림 파운데이션

주성분 중 유분이 많이 들어 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은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보호막을 형성하여 보습효과가 좋다.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

26) 중앙일보사 「메이크업」, 중앙일보사, 1995, p.51.

27) 신단주, 「MAKEUP ARTIST」, 삶과 문화, 2002, p.20.

지 않으며 피부 커버력이 좋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빛 투과율이 낮아 신부 화장이나 파티용 화장을 했을 때 피부 질감이 좋아 보인다. 자칫 두껍게 발라지기 쉬우므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덜어내지 말고 스펀지에 조금씩 묻혀서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도록 한다. 지나친 유분 감을 없애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페이스 파우더를 발라줘야 하는데 크림 파운데이션은 파우더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티슈로 가볍게 눌러준 다음 파우더를 바르는 것이 좋다.

(c) 스틱 파운데이션

립스틱과 같은 스틱 형태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복력이 우수하여 피부결점을 효과적으로 커버한다.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스틱 파운데이션은 예전에는 유분의 농도가 진한 무대 화장용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산뜻한 질감의 오일 프리 타입까지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두께감 때문에 피부 표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적당히 양을 조절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d) 스킨커버

스킨 커버는 피부 결점과 피부색, 피부 결까지 커버해 주는 유성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잡티가 많은 피부,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은 피부에 특히 좋다. 화장막이 유연하여 얼굴의 표정 변화에도 영감이 없이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도 하지만 윤곽 수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컨실러 대신 붓을 사용해 잡티를 커버하는 용도로 쓰여 진다. 크림 파운데이션보다 점도가 높아 끈적임 때문에 사용이 꺼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밀착감이 우수한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파우더를 바르는 것 같은 사용 감을 준 제품들도 개발되었다.

(e) 트윈케이크

처음 시장에 선보인 파운데이션은 연고 같았는데 유화공법이 개발되면서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이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는 색조 성분의

파우더 입자 하나하나를 유분과 수분으로 둘러싸서 케이크 타입으로 담은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트윈케이크이다. 이들 제품은 밀착감이 좋고 피부에 피지 막을 만들어 화장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무엇보다도 사용법이 간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내수성이 우수하고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어 하절기를 비롯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다. 퍼프에 물을 적셔 사용하면 여름철에 청량감 있는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고 건조한 채로 쓰면 매트 한 느낌 그대로 신속한 화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를 쉽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성 피부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f) 파우더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압축시켜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콤팩트 타입 파운데이션이다. 트윈케이크와 같은 유형이나 파우더의 특성인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송보송한 감촉이 더 잘 살아 있다.

(g) 펄 파운데이션

최근 유행하는 글리터링 룩과 샤이니(shiny)메이크업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색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화장품 회사에 따라 명칭은 약간씩 다르다. 대개 크림 타입으로 바로 바르기도 하지만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섞어 가볍게 이용하기도 한다.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부분, 즉 눈두덩이나 이마, 코, 볼 뼈, 턱이나 가슴과 어깨와 같은 몸의 일부분에 발라 광택을 준다. 그 위에 펄 크림이나 펄 색도를 발라주면 반짝이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얼굴 전체에 펄을 바르면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① 파운데이션 선택 요령

파운데이션은 모델의 피부 상태나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의상, 모발 색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부색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더 어두운 색을 바르거나 밝은 색

을 쓸 수 있지만 베이스는 피부 톤과 일치시켜야 자연스러운 화장이 된다. 피부색과 어울리는 색상을 알아보려면 서너 가지색의 파운데이션을 뺨과 목과의 경계 부분에 길게 펴 발라 놓은 다음 3~5분이 경과 한 후에 관찰한다. 피부색과 가장 유사한 색을 선택하되 기본적으로 목 피부색과 맞춘다는 느낌으로 골라야 실수가 없다. 얼굴에 발라보기 어려울 때에는 손등이 아닌 손목 안쪽에 파운데이션을 발라 테스트한다. 파운데이션의 색이 너무 연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분비물과 결합해 흰색으로 변하며 반대로 진하면 오렌지색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래 피부색에 잘 어울리는지를 가능하면 자연광 아래에서 살피도록 한다. 만약 딱 맞는 색이 없다면 2개 정도의 파운데이션을 섞어 쓸 수도 있다. 이때는 피부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고 한꺼번에 다 바르지 말고 소량씩 덧바르도록 한다. 메이크업 톤에 따라 제품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가벼운 내추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저녁 모임과 같은 자리에는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피부 잡티를 커버하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려면 스킨 커버나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한다. 모델의 피부가 건조하면 촉촉하고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피지 분비가 많으면 매트 한 제품을 선택한다. 계절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 상태도 변하므로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나 물에 강하며 보송보송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추운 겨울에는 부드럽고 윤기 있는 파운데이션을 바른다.²⁸⁾

② 피부색과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색상은 본래 피부 톤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색조의 결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색을 골라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도 있다. 흰 피부의 경우 자신의 피부색보다 약간 진홍색이 도는 핑크 베이지를 바르면 혈색이 좋아 보이며 피부에 결점이 많으면 연한 다갈색 계통의 색을 발라준다. 희고 붉은 피부는 피부보다 약간 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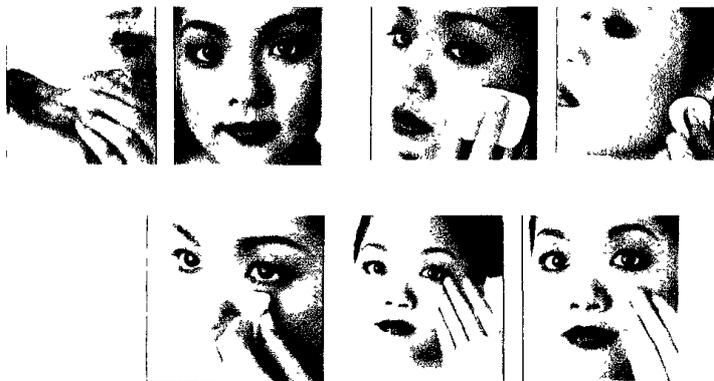
28) 앞의 책, p.24.

핑크색을 발라 적절한 혈색을 유지하게 한다. 연한 갈색 계통(라이트 베이지)을 바르면 얼굴의 붉은 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다. 노르스름한 피부의 겨우 자신의 피부색보다 약간 짙은 갈색을 발라 차분함을 주고 피부의 창백함을 커버하려면 피부색보다 밝은 핑크색을 발라준다. 짙은 활 갈색 피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부색 보다 약간 옅은 오크 계나 베이지색을 발라 자연스러운 갈색 피부로 표현한다. 다소 짙은 색을 사용하여 들떠 보이지 않게 한다.

③ 파운데이션 바르는 양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바르는 양은 얼굴의 피지 분비량과 관련이 깊다. 유분과 땀 등,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T존 부위(이마, 콧등)는 시간이 지날수록 번들거리므로 제일 소량을 바른 다음 O존(입, 눈 주위)부위는 피하지방이 적고 근육의 움직임이 많으므로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를 경우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이고 부자연스러우므로 파운데이션 양을 많지 않게 조절한다. 특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생긴 경우는 컨실러 등으로 커버한 다음 밝은 색 파운데이션을 약간만 사용하여 무겁지 않게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S존(볼 주위)은 피하지방이 많고 기미나 주근깨가 많이 생겨 커버력을 요하는 데다 자외선으로 인한 트러블을 막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도톰하게 발라도 괜찮다.

⑤ 파운데이션 바르는 요령 (그림 21 참조)



(사진 4) 파운데이션 바르는 요령

2) 파우더 류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의 피부는 유분으로 인해 번들거리고 빛이 난다. 파우더는 이러한 얼굴에 남아 있는 유분을 적절히 흡수하여 피부색을 보다 온화하고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파우더의 미세한 입자는 모공과 피부 돌기 사이사이에 골고루 발라져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보이게 하고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 얼굴을 더욱 밝고 화사하게 만든다. 피부 표현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파우더는 파운데이션이 땀과 피지에 의해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여 화장을 오래 지속시켜 줄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의 색감이 제대로 표현 될 수 있도록 색조 화장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파우더는 크게 가루분이라고 부르는 루스 파우더(loose power)와 콤팩트라고 부르는 프레스 파우더(pressed power)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우더라고 하면 루스 파우더를 가리키는데 입자가 섬세하여 피부에 곱고 얇게 발라지며 색상 표현도 다양하나 가루가 날려 휴대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것이 프레스 파우더이다.²⁹⁾

(a) 페이스 파우더

파우더는 표현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우더의 색상은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의 피부색을 보고 그 피부색의 밝기나 색의 느낌과 유사한 색상으로 바르는 것이 무난하다. 페이스 파우더를 선택할 때에는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색상과 동일한 호수를 사용하고, 좀 더 화사하게 보이려면 파운데이션 색상보다 한 단계 정도 밝은 것을 고른다.

만약 얼굴을 수정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두 가지(하이라이트와 셰이딩)로 발랐다면 파우더 역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이용해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b) 트랜스루센트 파우더

29) 앞의 책, p.35.

흔히 투명분이라고 부르는 트랜스루센트 파우더(translucent powder)는 실은 반투명 파우더로 파우더 자체의 색상 표현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표현된다.

(c) 화이트 파우더

흰색 파우더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를 희게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피부에 투명함을 주고 얼굴에 입체감을 강조할 때도 사용 할 수 있는데 T 존 부위와 눈 밑에 가볍게 파우더 링 해주면 얼굴 분위기가 밝고 화사해 보이면서 윤곽이 살아난다.

(d) 컬러 파우더

색상이 있는 파우더를 말하는 것으로 색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다. 컬러 파우더에는 핑크, 오렌지, 브라운, 그린, 퍼플 등이 있는데 핑크나 오렌지는 창백해서 생기가 없어 보이는 피부에 사용하며 그린은 잡티를 커버하여 투명한 피부로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브라운의 경우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수정 할 때 주로 사용된다.

① 파우더 바르는 요령 (사진 5 참조)



퍼프를 이용해 적당량을 묻힌 후 얼굴 전체에 가볍게 눌러 펴 발라 준다.

(사진 5)파우더 바르는 요령

2. Point Make-up

1) 립스틱 류

얇은 피부를 통해서 보이는 아름다운 혈색, 그것이 입술의 자연스러운 색이다. 그러므로 립스틱은 그에 가깝기 위해 붉은 색이 중심이 된다. 이 립스틱은 얼굴에 악센트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붉은 색을 기준으로 푸른 색에 가까운 것은 핑크와 로즈계통, 또 붉은 색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에 치우친 것은 오렌지나 브라운 계통이다. 그 밖에도 어두움의 명암, 선명함과 흐림에 따른 채도 등까지 고려하여 수많은 색깔의 립스틱이 있다. 입술은 잘 거칠어지고 마르기 쉬운 곳이다. 그런데 립스틱은 색깔의 변화만이 아니라 입술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을 보호할 수도 있다.

(a) 립 라이너

립 라이너는 입술의 윤곽을 정리해 주고 입술에 많은 주름 부분을 커버하여 립스틱이 번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입술이 작아 보이게 하거나 입체적으로 만드는 테크닉도 구사 할 수 있다. 대개 립스틱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같은 색 계열 중에서 약간 더 짙은 색을 바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b) 스틱타입

가장 일반적인 립스틱 스타일로 색상의 종류와 질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스틱상태 그대로 입술에 바르기도 하지만 붓을 이용해 그리는 것이 좋다.

(c) 글래스 타입

광택을 강조한 것으로서 유분과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입술 보호 효과가 뛰어나고 투명감이 있다.

① 립스틱의 색상 선택 요령

- 눈길을 끄는 색을 선택 한다

여러 가지 색깔의 립스틱 중 특별히 눈길을 끄는 색이 있기 마련이다. 보통 이러한 색상이 얼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색상이므로 따라서 입술을 매력 포인트로 강조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색상을 고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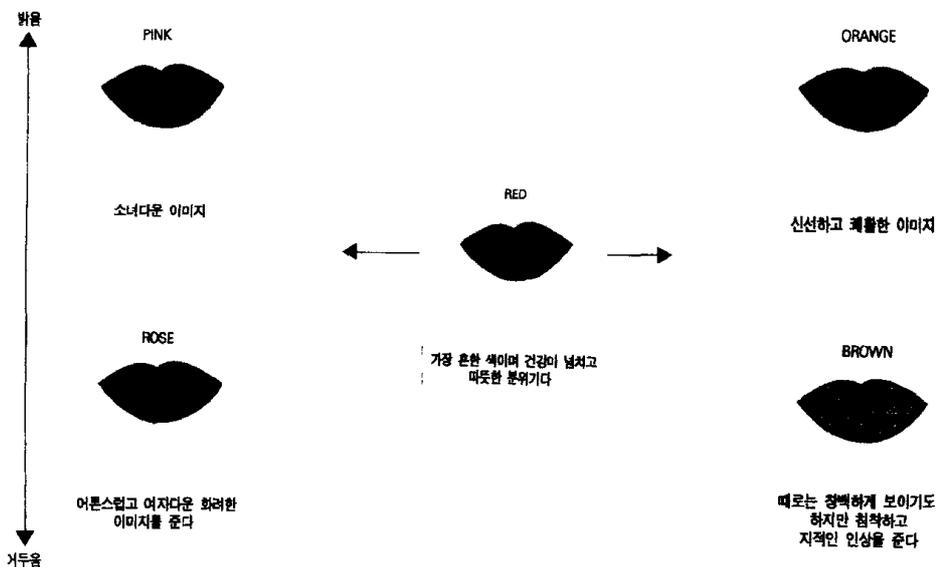
- 자신의 입술 위에 대어 본다.

아무리 예쁜 색이라도 본인의 피부색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돋보일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입술 위에 대어 보거나 발라보아 선택한다.

- 의상 색깔에 맞게 선택한다.

화장이나 치장에 있어 색깔의 매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립스틱을 선택할 때도 의상 색깔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② 립스틱의 색상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



(그림15) 립스틱 색상에 따른 이미지

2) 아이 류

(a) 아이새도

아이새도는 눈에 색감과 음영을 주어 깊이 있고 입체감 있는 눈으로 보이게 한다. 눈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눈의 모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부색, 눈썹, 코의 모양 등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화장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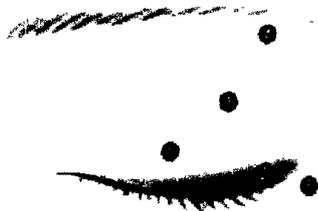
① 아이새도의 종류

아이새도의 종류에는 케이크타입, 크림타입, 펜슬 타입의 세 가지가 있다. 분말상의 새도를 압축하여 만든 케이크 타입은 휴대가 간편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발라진 분말이 지워지는 단점이 있다. 크림 타입은 점도가 높아 부드럽고 매끄럽게 펴 발라져 밀착 감은 좋으나 쌍꺼풀 부분에 몰리거나 기운이 높으면 번들거리는 단점이 있다. 화장을 빨리 해야 할 때 편리한 펜슬 타입은 선으로 눈매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적합하다. 크림 타입과 같이 몰리거나 번들거리는 단점이 있다.

② 아이새도의 색상선택

우선 자신의 피부색을 고려하여 피부색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한다. 특별한 날에는 의상 색과 맞추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메이크업 패턴에 따라 선택하기도 한다. 눈의 형태를 고려하여 장점을 강조할 수 있거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③ 아이새도의 명칭 (그림 16 참조)



(그림 16) 아이새도의 명칭

① 메인컬러 (Main color)

30) 앞의 책, p. 41.

아이새도의 주 색상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눈을 떴을 때 2~3mm 정도 보이도록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액센트 컬러(Accent color)

눈매를 또렷하게 강조하기 위해 바르는 아이새도 컬러이다. 강한 색감을 살려 선명하게 그린다

③ 새도 컬러(Shadow color)

눈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 바르는 컬러로 움푹 들어가 보여야 할 아이 홀 부분에 브라운 계열 색상을 주로 바른다.

④ 하이라이트 컬러(Highlight color)

눈썹 뼈 부분이 돌출되어 보이도록 바르는 밝은 색상의 컬러

⑤ 언더 컬러(Under color) 아래 눈꺼풀부분에 새도선의 느낌으로 깨끗이 발라준다.

④ 아이새도 바르는 방법

아이새도를 바르기 전, 브러시에 새도를 묻혀 손등에서 색상 농도를 확인한 다음 눈꺼풀에 바른다. 질게 강조하고 싶은 부위는 한꺼번에 두텁게 바르지 말고 강조하고 싶은 부위에 여러 번 덧 발 라 원하는 색감을 표현한다. 연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넓은 부위에 넓게 펴 바를 때에는 넓은 면의 브러시를 이용한다. 눈앞머리나 아래눈꺼풀, 눈 꼬리 부분을 선적인 느낌으로 바를 때나 짙고 강한 색상을 바를 때는 좁은 브러시로 아이 새도를 바른다.

아이새도 색상끼리의 경계선을 없앨 때나 눈 밑 새도가 번졌을 때, 잘 못 발라 수정을 해야 할 때 면봉을 이용하면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손질할 수 있다. 아이새도 가루가 다른 곳에 날리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눈꺼풀에 잔주름이 많은 경우에는 펄이 섞여 있지 않은 매트 한 아이새도가 효과적이다. 펄이 든 아이새도는 안경 속에 비치는 눈의 표정을 번쩍이게 하거나 잔주름이 두드러져 보이게 하므로 좋지 않다. 시간이 지나 아이새도 화장이 뭉치면 면봉으로 곱게 편 다음 티슈로 가볍게 눌러 유분 기를 제거한 다음 콤팩트를 눈꺼풀 전체에 바르고 아이새도를 다시 발라 깨끗하게 정리한다. (사진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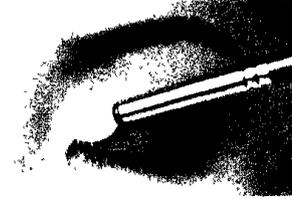
눈꼬리에 베이스 색도보다 짙은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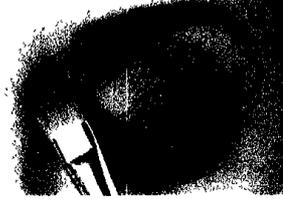
눈두덩 전체에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파우더로 눌러주어 기초 피부를 만든다.



색도를 바르기 전에 눈꼬리에서 눈썹 곁으로 이어지는 색도 영역을 설정한다.



포인트 색도가 조금 묻은 탐으로 눈머리에서 아이홀 쪽으로 짧게 그라데이션한다.



중간 컬러로 눈꼬리에서 중앙으로 눈머리에서 중앙으로 색도를 덧발라 음영을 준다.

(사진6) 아이색도 바르는 방법

(b) 아이라이너

처음 화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처음 화장을 하는 경우라도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연습해 나간다면 점차 고도의 아이라인 테크닉을 익혀 나갈 수 있다.

① 아이라이너의 종류

아이라이너의 종류에는 펜슬 타입과 리퀴드 타입, 케이크 타입이 있는데 펜슬 타입은 색상도 다양하고 손쉽게 그리거나 수정하기가 쉽고 휴대하기도 간편하지만 번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펜슬 심은 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리퀴드 타입은 눈매의 선적인 부분을 연출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광택이 느껴지면서 물이나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필름타입과 광택이 없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만 눈물 등에 지워질 수 있는 워시오프 타입이 있다. 케이크 타입은 고형타입으로 물이나 스킨을 섞어 사용하며 건조가 빨라 쉽게 번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며 서로 색을 섞어 사용 할 수도 있으며 아이색도와 같이

섞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② 아이라이너의 표현방법

아이라인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감추어 그리는 아이라인(펜슬타입)과 드러나게 그리는 아이라인(리퀴드 타입)이 있는데 눈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으면 드러나게 그리는 아이라인으로, 눈을 은은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감추어 그리는 아이라인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c) 마스크라

마스크라는 속눈썹을 길고 짙게 보이게 하고 볼륨감을 줌으로써 눈매를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다. 눈동자가 선명해 보이고 눈이 커 보이면서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라는 특히 매력적인 옆얼굴을 만들어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기본 색은 검정이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컬러의 색상이 있어 개성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마스크라는 물에 잘 지워지는 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물이나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 프루프(Waterproof)타입은 지울 때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물에 쉽게 녹아내리듯 지워지는 워시 오프(wash off)타입은 비교적 눈에 자극이 적다.

① 마스크라 바르는 방법

기초화장을 할 때 바른 로션이 속눈썹에 남아있게 되면 마스크라가 잘 발라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눈썹 부위에 콤팩트나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발라 속눈썹의 유분기를 제거해 준 다음 마스크라를 바른다. 먼저 아이래시컬러(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준다. 아이시컬러를 사용 할 때는 한번에 힘껏 조이는 것보다 순간적인 압착을 몇 번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중간부분에서 한번 누르고 바깥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조이면 훨씬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 있다. 마스크라 용기에서 브러시를 뺄 때 용기입구에

서 내용물의 양을 조절한 다음 속눈썹의 윗면을 쓸어내리듯 발라 준다. 그런 다음 아래서 위로 치켜 올리다가 속눈썹 중간 부분에서 가볍게 한번 눌러준다. 아래 속눈썹을 바를 때에는 브러시를 세워서 옆으로 쓸어주면 내용물을 눈가에 묻히지 않고 쉽게 바를 수 있다. 마스카라를 한번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건조하면 그 위에 다시 한번 덧바른다. 속눈썹이 훨씬 진하게 길어 보이게 된다.

(d) 아이브로펜슬

눈썹 화장만큼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을 결정짓는 메이크업도 없다. 눈썹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그 사람을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얌전하고 소극적인 여성으로, 이지적이면서 화려한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게 만든다. 색조화장이 자신만의 컬러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만든다면, 눈썹화장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상을 선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숨은 공로자인 셈이다. 아이브로펜슬에는 연필 형과 샤프 형이 있고 경우에 따라 펜슬이 아닌 새도로 눈썹 화장을 할 수도 있다. 아이브로펜슬의 색상에는 검정 색, 회색, 갈색이 있다. 개성적인 느낌을 주는 검정 색은 눈이 크고 피부가 흰 사람에게 잘 맞는다. 회색은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러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린다. 세련된 느낌의 갈색은 건강하고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에 적합한 색깔이다. 눈썹 색은 원칙적으로 머리카락 색에 맞추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을 하여 부드럽고 가벼운 갈색이나 카키색 등도 많이 쓰인다.

① 아이브로 그리는 방법

- ② 브러싱으로 눈썹 앞머리 흐름을 약간 위로 세워 정리한다. 눈썹의 중심에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브러싱하고 눈썹 산의 모양이 살도록 잘 정리한다.
- ③ 다소 딱딱한 펜슬로 눈썹 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한다. 눈썹 산의 위치를 결정한다. 표준은 눈썹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적당하다.
- ④ 눈썹

앞머리는 얇게 그린다. ㉔ 눈썹 산부터 눈썹꼬리를 향해 그린다. ㉕ 브러시로 가볍게 쓸어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㉖ 눈썹이 쉽게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티슈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② 눈썹의 형태와 이미지 (그림 17 참조)



(사진 7) 눈썹의 형태와 이미지

3) 불연지 류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불연지(블러셔)는 혈색을 좋아 보이게 하는 역할과 함께 얼굴형을 수정하는 효과가 있다. 서양인들에 비해 평면적이고 넓은 볼을 지니고 있는 동양인들은 블러셔를 강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어색하므로 도드라지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a) 케이크 타입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케이크 타입 블러셔는 색감표현이 쉽고 자연스러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건강한 혈색 표현과 전체적인 윤곽 수정에 사용되며 브러시를 이용해 바른다.

(b) 크림 타입

케이크 타입처럼 혈색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주로 윤곽 수정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 파우더를 사용하기 전에 손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발라준다.³¹⁾

① 볼연지(블러셔)의 색상 선택 요령

다른 색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델의 피부색이나 연출하고자 하는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혈색이 없거나 흰 피부에는 핑크계열의 블러셔를 사용하고, 희면서도 붉은 피부에는 붉은 기가 많은 브라운을, 노르스름한 피부에는 연 오렌지나 산호색 블러셔를 발라 창백 감을 없애 준다.

②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 방법

블러셔를 넣기 전에 이상적인 얼굴형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 블러셔의 농도를 조절해서 이상적인 얼굴형에 따라 윤곽선을 다듬어 준다. 블러셔로 이마 가장자리를 쓸어 줄 때는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은은하게 터치하고 이마가 좁은 사람은 블러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턱에는 아이새도보다 어두운 색상을 선택한다. 턱이 뾰족한 사람은 턱 끝부분에 브러시를 살짝 스치듯이 발라주고 턱이 넓은 사람은 사선의 느낌으로 블러셔를 바라준다. 볼이 통통한 사람은 조금 세워 다소 길게 발라주고 얼굴이 긴 사람은 광대뼈를 중심으로 가로 방향으로 터치해주고 이마와 턱 끝에 살짝 바르면 얼굴이 다소 짧아 보이게 된다.

31) 앞의 책, p. 89.

V. 메이크업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황별 색채 표현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영역 중에서 계절별 메이크업과 상황별 메이크업을 통한 색채표현 방법을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와 이미지 맵, 칼라 칩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통해 메이크업의 색채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봄 메이크업

봄은 꽃이 피는 컬러의 이미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봄의 메이크업 패턴은 대개 핑크를 주조로 한 것과 예로와 오렌지, 그린 등을 사용한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어둡거나 가라앉는 톤보다는 밝고 화사한 톤으로 표현하며 투명 감 있고 화사한 로맨틱 스타일이 잘 어울리며 질게 표현하기보다는 다소 가벼운 느낌의 피부 표현에 중간색과 밝은 색을 활용하며 혈색을 주기 위해 볼 터치를 하여 화사함을 더해 준다. 봄에 많이 쓰이는 아이섀도의 색은 분홍색, 산호색, 노란색, 연녹색, 청록색 등인데 피부 톤에 따라 알맞은 색을 정하고 그에 맞춰 립 컬러 등 나머지 부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이메이크업을 핑크로 하면 같은 핑크 립스틱을 청록이면 연한 핑크, 연녹색이면 차분한 주황빛 입술 색이 어울린다. 명도와 채도는 높으며 중간정도까지 분포되어 있다. (사진 8 참조)

1) 피부

투명 감 있는 피부로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 베이스나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소량을 넓게 펴 바른다. 피부 톤은 베이지나 핑크계열의 중간 톤이 좋는데 평소보다 2분의 1톤 정도 밝게 표현한다. 하이라이트는 제대로 주되 쉐이딩은 약하게 한다. 핑크 파우더로 관자놀이부터 눈언저리까지 바른 후 투명 파우더로 산뜻하게 마무리한다.

2) 눈

봄 컬러 중 밝고 화사한 톤인 산호색, 핑크 베이지 색, 오렌지계열, 연
 그린 계열, 옐로 계열을 주로 하되 짙은 계열은 포인트로 소량으로 표현한
 다. 예를 들어 화이트 아이섀도를 눈 전체에 넓게 깔 다음, 화이트와 핑크
 를 믹스하여 눈썹 뼈를 제외한 눈두덩 전체에 바른다. 쌍꺼풀 부위에 진한
 핑크로 포인트를 준다. 아이라인은 케이크 타입 아이라이너로 얇게 그린
 다. 눈썹은 표준 눈썹으로 그리되 진해지지 않도록 한다.

3) 입술

아이섀도와 같은 계열의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투명 립글로스를 살짝
 바르면 한층 싱그럽게 보인다.

4) 볼

핑크로 광대뼈 위를 사선 느낌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그 윗부분에 화
 이트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사진 8) 봄 메이크업 32)

33) http://www.color21c.co.kr/color_power/4seasons_color/4seasons_color.htm에
 서 발췌

2. 여름 메이크업

여름은 밝고 연한 파스텔 조 색상의 블루 베이스가 특징이며 푸른 기가 도는 색상이 중심이 된다.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으며, 피부색은 아주 희거나 장미 빛 붉은 흰색, 도자기와 같은 빛을 띤다. 머리카락 색상은 밝은 블론드, 회색과 백금 계열을 띄고 있고 눈은 블루나 연회색 계통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우면서 온화하고 친절함 느낌을 준다. 여름 메이크업은 파스텔 톤으로 표현하는 봄 메이크업과 같으나 색깔의 선택은 차가운 계열을 하는 것이 좋다.³³⁾ (사진9 참조)

1) 피부

피부 톤이 울긋불긋 해 보일 수 있으므로 오렌지 색 메이크업 메이스를 사용하고 어두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발라 검은 피부로 표현한다. 피부색보다 한 톤 밝은 파운데이션은 T존에, 어두운 것은 웨이딩에 이용하여 하이라이트와 웨이딩을 확실하게 준다. 웨이딩 부분은 어두운 파우더로 먼저 바른 뒤 밝은 베이지 파우더를 섞어 덧발라준다. 햇볕에 그을려서 잡티가 생겼으면 피부보다 한 톤 어두운 컨실러로 커버한다.

2) 눈

얇은 블루와 미색을 믹스하여 눈두덩 전체에 펴 바른다. 짙은 블루로 눈꼬리 쪽을 끌어 올리듯 샤프하게 강조한다. 아이라인은 검정 펜슬로 다소 진하게 그리고 눈썹은 표준형보다 약간 굵고 짧게 그려준다. 눈썹 산을 약간 뒤로 가게하고 눈썹 끝이 눈썹 앞머리보다 약간 올라가게 하면 오픈된 느낌이 들어 시원해 보인다.

3) 입술

펼 감이 도는 립스틱이 좋다. 건강한 느낌을 주려면 금빛 모래 빛 색깔인 골드 베이지를, 시원한 파도의 느낌을 주려면 은색 펼을 바른다.

4) 볼

33) 김영희, 「토탈 메이크업」, 2001, p.42.

베이지로 불연지를 한 다음 펄 감을 살짝 가미하도록 한다.



(사진 9) 여름 메이크업 34)

3. 가을 메이크업

가을은 풍요로우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준다.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이지적이면서도 맑고 신선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한 화장을 하는 것이 좋다.(사진10 참조)

1) 피부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색을 연출하는 것이 메이크업의 기본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 메이크업 베이스로 투명 감 있는 피부색을 준 다음 액체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한다.

2) 눈

34) <http://members.tripod.lycos.co.kr/eshow/makeb.htm>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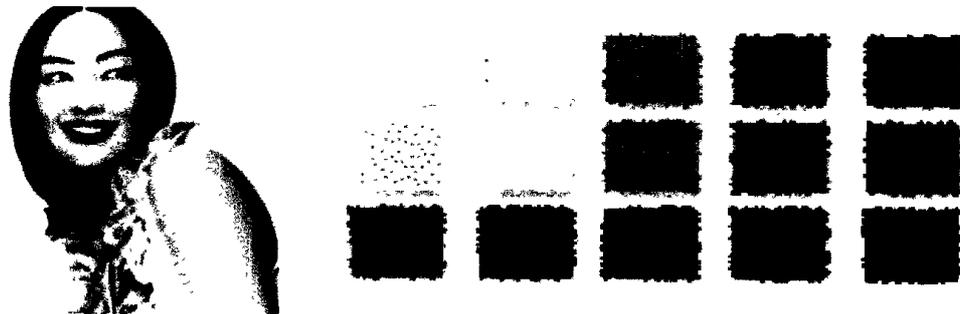
의상 색에 맞추어 화장을 하되 주로 브라운 계열로 표현한다. 상아색을 눈두덩 부분에 가볍게 펼쳐 바른 후 다시 연한 황색으로 터치해준다. 흑갈색으로 눈 꼬리에서 눈 앞쪽으로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평온한 분위기로 연출한다. 다시 눈 화장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톤 눈썹 화장까지 마무리한다. 가을에는 브라운 색상의 눈 화장과 더불어 복고풍 화장도 유행하는 계절이다. 아이라인을 짙고 굵게 그려 주고 독특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3) 입술

아이새도의 색상보다는 한 단계진한 색상으로 본래의 입술보다 약간 볼륨이 있게 표현한다. 복고풍 스타일로 눈 화장을 했을 경우 입술을 아주 흐린 핑크로 해서 입술이 있는 듯 없는 듯 표현하는 것도 좋다. 특히 요즘 내추럴 모드가 유행하면서 옅은 색의 립스틱 색상이 가을 메이크업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주로 입술 본래의 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산호색 계열의 색상이 주조를 이루는데 강해지는 눈 화장에 비해 약해지는 것이 특색이다.

4) 볼

아이새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오렌지색과 커피색으로 얼굴의 윤곽을 가볍게 터치하여 입체감 있게 연출한다.



(사진10) 가을 메이크업³⁵⁾

4. 겨울 메이크업

35) <http://members.tripod.lycos.co.kr/eshow/makeb.htm>에서 발췌

겨울철에는 철저한 기초화장이 중요한 계절이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질이 일어나므로 메이크업 시에 꼼꼼하게 한다.(사진11 참조)

1) 피부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는가 하면 밖의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트기도 쉽다. 따라서 기초화장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베이지 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얼굴의 요소 요소에 자연스럽게 펼쳐준 후 잘 마무리한다.

2) 눈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계절이다. 최소한 오버코트 등으로 몸을 감싸주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아한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다. 오버코트를 입고 외출할 때는 브라운과 핑크를 조화시켜 차분하면서도 이지적이고 온화한 분위기를 내 본다. 옅은 황색을 눈두덩 이에 펼쳐서 바른 후 진한 보라색으로 눈 앞머리에서부터 꼬리부분까지 점차 진하게 경계선이 보이지 않도록 번지듯이 그려 준다. 여기에 다시 연분홍색으로 눈 전체를 가볍게 쓸어주면 성숙한 지성미로 연출할 수 있다. 가벼운 파카차림으로 외출하는 경우는 화장도 부드러우면서 발랄한 분위기로 만든다. 옷의 색상에 맞게 아이새도의 색상을 선택하고 눈 꼬리를 경쾌하게 살짝 올려 준다.

3) 입술

자신에게 어울리는 립 색상을 선택하여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메이크업 전체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흑장미 색과 분홍색을 이용하여 지성미를 한층 돋보이게 연출한다.



(사진11) 겨울 메이크업³⁶⁾

5. 클리어 이미지 메이크업

순수, 청결, 산뜻함의 의미를 가진 메이크업으로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주로 사용하는 톤은 페일(pale)톤과 라이트(light)톤이 주를 이룬다.(사진12와 그림17 참조)

1) 피부

베이지 톤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소량 덜어 곱게 펴 발라 준 후 투명파우더로 마무리 한다.

2) 눈

연한 오렌지나 베이지를 이용해 눈두덩 전체에 바른 뒤 한톤 정도 어두운 색을 이용해 눈 꼬리 쪽에 살짝 포인트를 준다. 아이라인은 오렌지 브라운으로 속눈썹안의 점막부위에 살짝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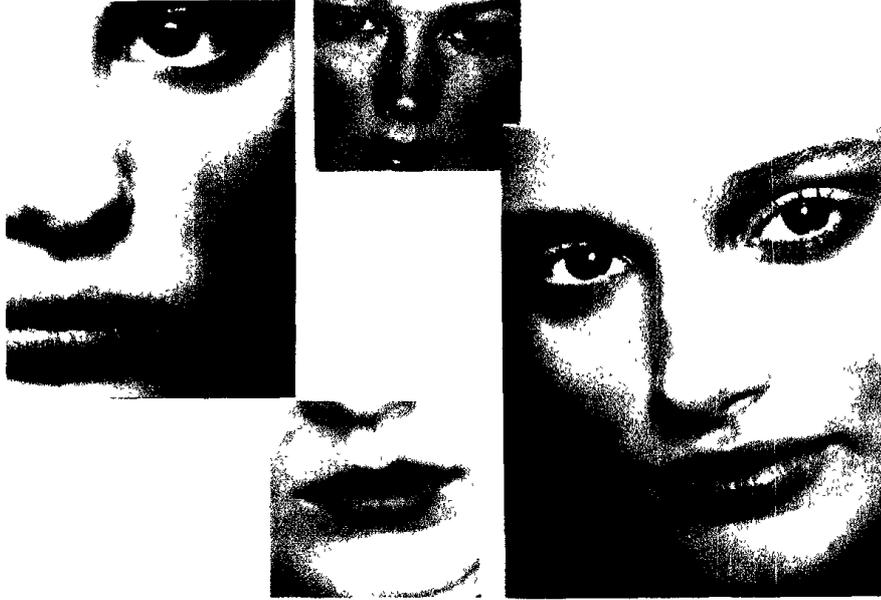
3) 입술

연한 황색기의 오렌지 립스틱을 바른 뒤 립 글로즈를 이용해 살짝 덧발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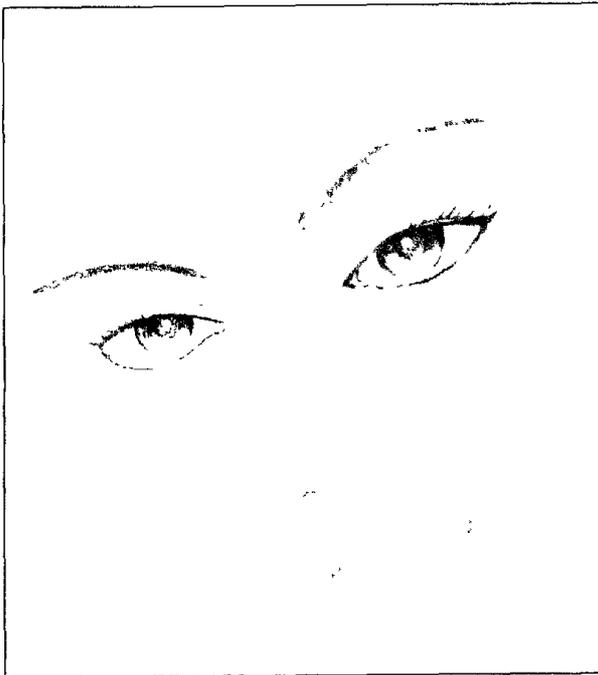
4) 볼

연한 황색기의 오렌지색을 이용해 볼 위에 발라준다.

36) 위의 사이트



(사진 12) 클리어 이미지³⁷⁾



(그림 17) 클리어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37)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제작한 것임

6. 귀여운 이미지 메이크업

귀엽고 어리면서 달콤함의 의미로 메이크업에서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주로 10대들의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며 사용하는 톤은 라이트(light)톤과 브라이트(bright)톤이 주를 이룬다.(사진13와 그림18 참조)

1) 피부

핑크 톤의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로 밝고 화사하게 표현한다.

2) 눈

핑크색이나 연한 녹색을 이용하여 쌍꺼풀 위 부분까지 둥글게 발라준다. 아이라인은 펜슬을 이용해 눈동자가 있는 부분은 조금 놓게 그려 동그래 보이도록 표현한다.

3) 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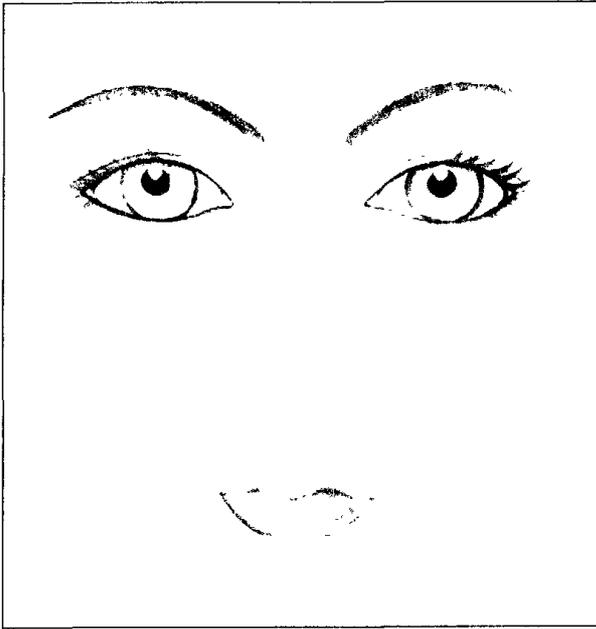
연한 핑크나 밝은 적색의 립 글로즈를 이용해 발라준다.

4) 볼

핑크색을 이용해 광대뼈의 가장 높은 부분에 동그랳게 발라준다.



(사진 13) 귀여운 이미지



(그림 18) 귀여운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7. 페미닌 이미지 메이크업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우며 우아함과 섬세함의 의미로 메이크업에서는 깔끔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사용하는 톤은 페일(pale)톤과 라이트(light)톤이 주를 이룬다.(사진14와 그림19 참조)

1) 피부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 보다 한톤 밝게 발라주고 핑크 파우더를 이용해 화사하게 표현한다.

2) 눈

크림색을 전체적으로 펴 바르고 핑크나 오렌지를 이용해 쌍꺼풀 위까지 발라 준다. 아이라인은 리퀴드 타입으로 얇고 길게 그려 준다.

3) 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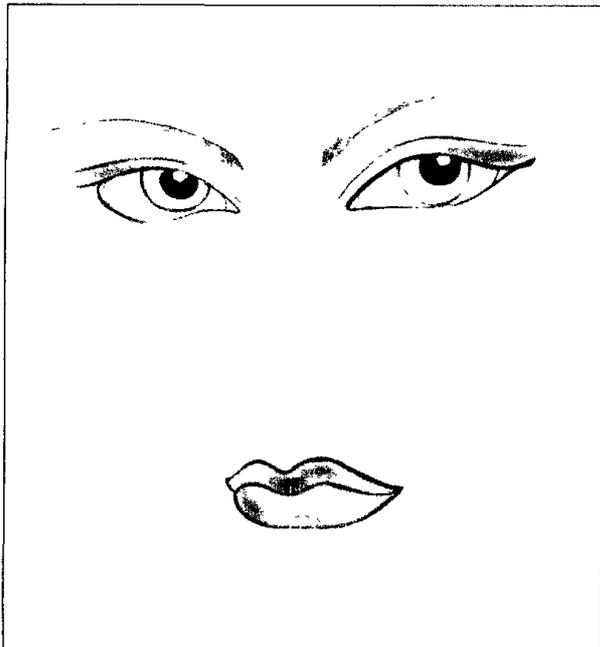
립 라이너로 입술을 작게 그려주고 보라색계통이나 핑크색 립스틱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발라 준 후 립글로스를 발라준다.

4) 볼

핑크색을 이용해 광대뼈 부위에 넓게 발라준다.



(사진 14) 페미닌 이미지



(그림 19) 페미닌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8. 글레머러스 이미지 메이크업

성적으로 매력 있는 섹시하고 요염하고 원숙적인 숙련된 상태의 의미로 메이크업에서는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사용하는 톤은 디프(deep)톤과 다크(daek)톤이 주를 이룬다.(사진15와 그림20 참조)

1) 피부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 보다 밝고 완벽하게 발라주고 핑크 파우더로 화사하게 표현한다.

2) 눈

보라색을 아이 홀까지 그라데이션 해주고, 진한 청자색으로 포인트를 준다.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이용해 진하고 강하게 그려주고 눈 꼬리를 오려 준다. 언더아이라인도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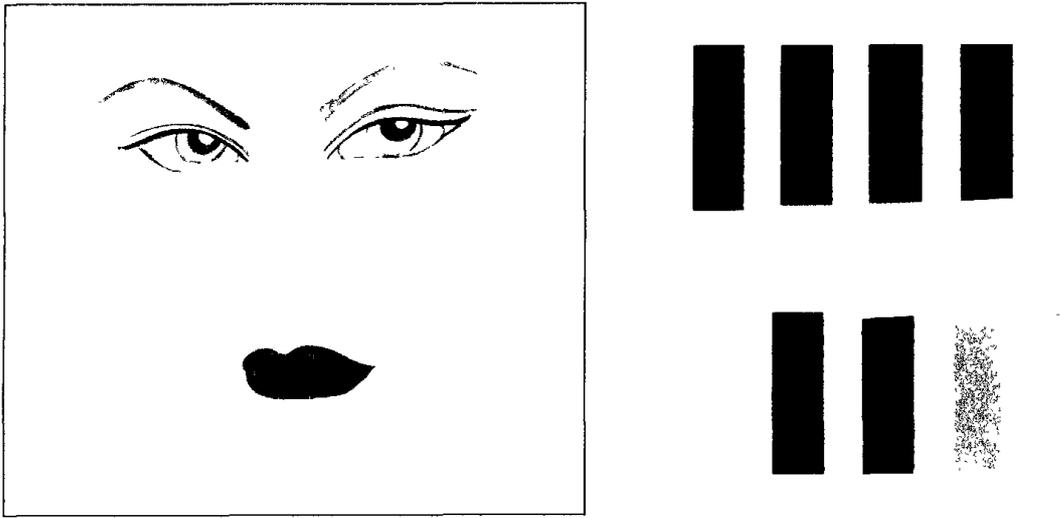
3) 입술

립 라이너로 입술형태를 아웃커브로 조금 크게 그려주고 진한 적색립스틱을 이용해 발라준다.

4) 볼 적색계열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발라 준다.



(사진 15) 글레머러스 이미지



(그림 20) 글레머러스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9. 고저스 이미지 메이크업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화려한 고급스러움의 의미로 메이크업에서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약간은 도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사용하는 톤은 디프(deep)톤과 다크(daek)톤, 비비드(vivid)톤이 주를 이룬다.(사진16와 그림21 참조)

1) 피부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 보다 한 단계 밝게 바르고 펄 파우더로 화려하게 표현한다.

2) 눈

보라색을 아이 홀과 언더라인까지 강하게 발라주고 펄 가루를 이용해 화려하게 표현해 준다.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이용해 강하게 그려주고 언더라인은 점막부분까지 그려 준다.

3) 입술

어두운 브라운색의 립 라이너로 입술형태를 정확하게 그려 준 후 선명한 적자색 립스틱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입술 중앙에 펄을 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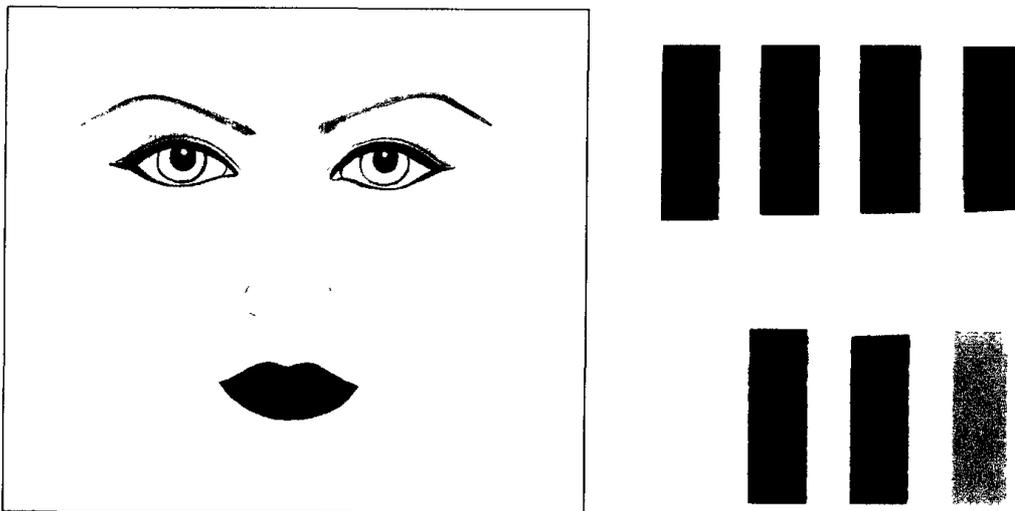
마무리 한다.

4) 블

필이 섞인 보라색을 이용해 광대뼈 부위에 넓게 발라준다.



(사진 16) 고저스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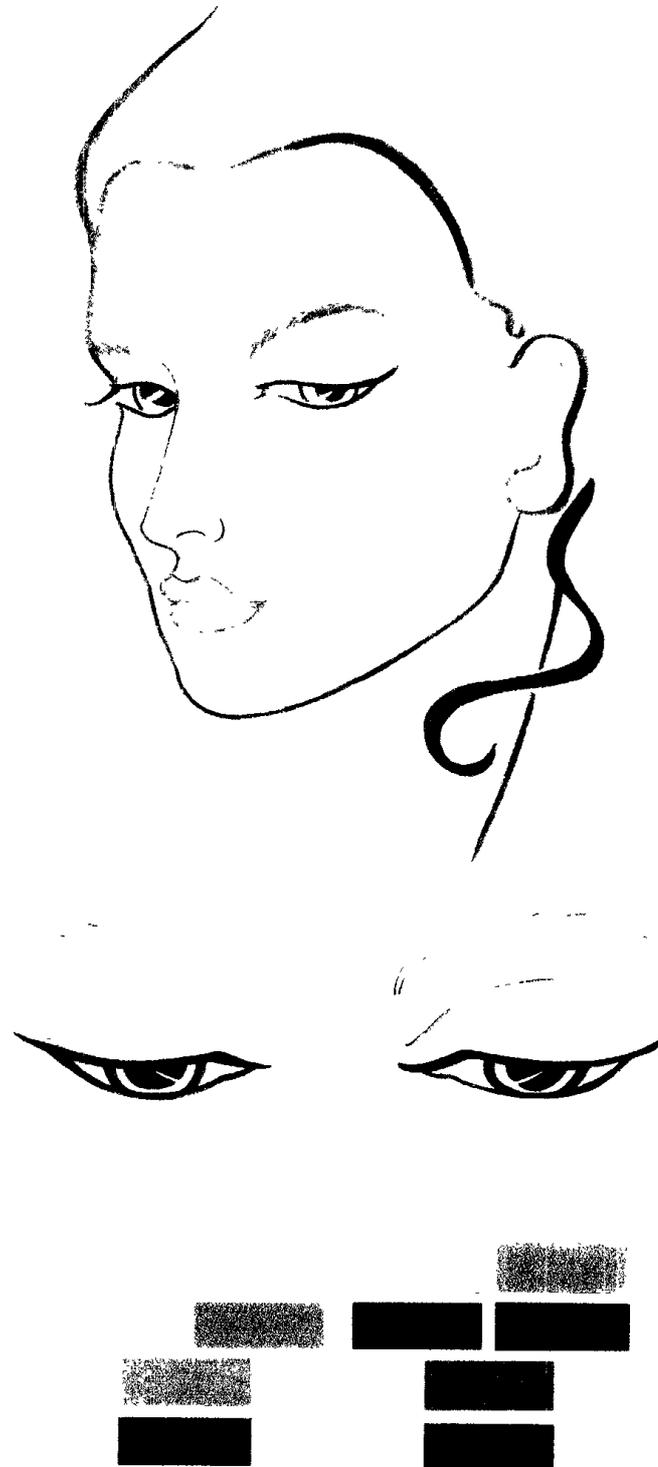


(그림 21) 고저스 이미지 일러스트와 칼라 칩

VI. 실제 메이크업 사진을 통한 얼굴 이미지의 변화도

메이크업은 인간이라는 캔버스 위에 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변화 시키는 과정으로 무엇보다도 어떠한 부분이나 상황에 어떻게 색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메이크업 기술은 시술자의 취향과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느낌으로 만 시술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술 후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도 시술자 본인이 어떠한 색을 어느 정도 범위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임의의 색상을 선택해 수정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메이크업 색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시술 전 일러스트 제작과 칼라 칩 제시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기술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술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제작한 일러스트와 칼라 칩, 실제 메이크업 상태를 서로 비교 분석 함으로써 그 메이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아래의 실제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변화도 사진과 일러스트, 칼라 칩을 이용해 직접 살펴보고 있다.

1. 얼굴 윤곽 수정 변화도와 여름 이미지 메이크업



(그림 22) 실사 이미지 일러스트

1) 메이크업 전 이미지



(사진 17) 메이크업 시술 전

- 피부 : 잡티는 많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어두우며 눈 밑 부분은 피부 톤보다 2톤 정도 더 어두운 편이므로 이 부분의 커버를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썹 : 눈썹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 있는 편이나 앞머리가 너무 가깝게 나 있고 꼬리부분은 술이 적은 편이어서 시술시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 : 눈은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없으며 전체적인 얼굴형에 비해 좀 작은 편이므로 좀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메이크업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입술 : 윗입술은 완만한 편이나 아랫입술이 너무 작고 중앙 부위가 움푹 들어 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완만해 보이게 표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얼굴형 : 볼에 살이 많고 턱은 뾰족하며 이마는 좁은 형태의 마름모꼴에 가까운 얼굴형이므로 이마는 넓어 보이게

해주고 볼은 좀 들어가 보이게 표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메이크업 후 이미지 분석



(사진 18) 메이크업 시술 후

피부 : 건강한 피부색 표현에 중점을 둔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턱의 뾰족한 부위와 양 볼 부위에는 피부색 보다 두톤 어두운 색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해 주고 좁은 이마 끝에는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색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해 주었고, 눈 밑은 컨실러를 이용해 얇게 펴 발라 주어 너무 두꺼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밝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아이섀도 :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옅은 하늘색을 이용해 펴 발라 주고 눈 꼬리 부분에 강한 파랑색과 청록색을 섞어 위 쪽으로 그라데이션 해 주어 눈이 좀 더 커 보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했다.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이용해

쌍꺼풀이 없는 쪽은 눈 중앙 부위를 약간 두껍게 그려 주고 있는 쪽은 눈 중앙 부위를 얇게 그려 눈 크기가 비슷해 보이도록 연출 하였다.

눈 썹 : 눈썹은 완만한 느낌이 들면서 산 부위만을 살짝 올라 오도록 하고 눈썹의 간격을 약간 벌어지게 그려주어 미간이 넓어 보이게 하였다.

입 술 : 내추럴한 색상의 립 라이너를 이용해 위 입술모양은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형으로 그리되 너무 둥글거나 크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했으며 아래 입술의 경우 중앙부위를 넓혀주고 전체 입술 색상보다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속들어간 입술을 넓어 보이게 커버해 주었다.

볼 : 브라운 색을 이용해 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폭넓게 발라주고 브러시에 남은 여분의 색상을 이용해 볼 부분부터 얼굴의 바깥쪽 라인에 발라 주어 한 번 더 음영을 주었다.

2. 네추럴 톤 메이크업



(그림 23) 실사 이미지 일러스트

1) 메이크업 전 이미지



(사진 19) 메이크업 시술 전

- 피부 :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서 그런지 볼 부위와 입가 등에 약간의 여드름이 있다. 피부 톤이 어두우며 눈 밑 부분은 피부 톤보다 2톤 정도 더 어두운 편이므로 이 부분의 커버를 확실히 해 주되 어린 나이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썹 : 눈썹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 있는 편이고 내추럴 메이크업의 특성상 눈썹은 강조하지 말고 얼굴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 : 눈은 쌍꺼풀이 없는 홑꺼풀의 눈으로 크기도 적당한 편이므로 홑꺼풀 눈의 특성인 부어 보이는 눈이 되지 않도록 메이크업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입술 : 입술은 형태가 완만하고 크기가 적당한 편이므로 색상만 피부 톤을 유의해서 선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얼굴형 : 볼에 살이 없고 턱은 뾰족하며 전체적으로 긴 형태이므로 메이크업 시 긴 얼굴을 짧아 보일 수 있게 표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메이크업 후 이미지 분석



(사진 20) 메이크업 시술 후

- 피부 : 건강하고 맑은 피부색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턱의 뾰족한 부위에는 피부색 보다 두톤 어두운 색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해 주고 살이 없는 볼 부위에는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색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해 주었고, 눈 밑은 컨실러를 이용해 얇게 펴 발라 주어 너무 두꺼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밝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아이섀도 :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옅은 살구 색을 이용해 펴 발라 주고 눈 꼬리 부분에는 전체 톤 보다 한톤 정도 강한 색을 이용해 섀도를 한 듯 안한 듯 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그라데이션 해 네추럴 한 느낌을 강조해 주었다.
- 눈썹 : 눈썹은 완만한 느낌이 들게 해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자신의 눈썹을 자연스럽게 살려서 표현해 주었다.
- 입술 : 내추럴한 색상의 립 라이너를 이용해 위 입술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준 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해 주고 전체적으로 베이지 빛이나, 투명 립글로스

를 이용해 한번 더 발라 주었다.

볼 : 브라운 색과 살구 색을 믹스해 광대를 감싸면서 가로에
느낌으로 발라주고 볼 부위에는 밝은 아이보리 색을 이
용해 발라주어 통통해 보이면서 짝아 보일 수 있게 해
주었다.

3. 원톤 스타일 메이크업



(그림 24) 실사 이미지 일러스트

1) 메이크업 전 이미지



(사진 21) 메이크업 시술 전

- 피부 :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형태의 피부이므로 피부 톤을 그대로 살리면서 윤곽만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썹 : 눈썹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 있는 편이나 꼬리 부분이 약간 내려가 있는 형태이므로 이부분의 수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눈 : 눈은 속 쌍꺼풀이 있고 비교적 크고 또렷한 형태이므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시술해 주면 될 것이다.
- 입술 : 아랫입술은 완만한 편이나 윗입술이 작은 편이므로 이부분을 어색하지 않은 형태로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얼굴형 : 볼에 살이 많고 이마부분이 살짝 좁아지는 형태이므로 이마는 넓어 보이게 해주고 볼은 좀 들어가 보이게 표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메이크업 후 이미지 분석



(사진 22) 메이크업 시술 후

피부 : 자연스러운 피부색 표현에 중점을 둔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피부 톤을 잘 살 수 있도록 얇게 펴 발라주고 볼 부위에는 피부색 보다 두 톤 어두운 색을 이용해 그라데이션 해 주고 살짝 좁은 이마 끝에는 피부 톤 보다 한톤 밝은 색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라데이션 해 주었다.

아이섀도 :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옅은 오렌지색을 이용해 펴 발라주고 아이 홀 부분에만 노랑색에 펄이 들어간 섀도를 이용해 펴 발라주어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연출해 준다.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그려주되 꼬리 부분만을 살짝 빼주도록 하며 마스카라를 이용해 속 눈썹을 강하게 올려주어 눈이 더 맑고 또렷해 보이도록 해주었다.

눈썹 : 눈썹은 완만한 느낌이 들면서 산 부위만을 살짝 올라 오

도록 하고 쳐져 보이는 꼬리부분은 다듬어서 수정 해 준 후 새도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다.

입술 : 오렌지나 살구 빛 색상의 립 라이너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작은 위 입술은 커보이게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립글로스를 오렌지 톤의 립글로스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한번더 발라주어 귀여운 느낌이 드는 글로시한 입술이 되도록 하였다.

볼 : 브라운과 오렌지색을 믹스해 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폭 넓게 발라주고 브러시에 남은 여분의 색상을 이용해 볼 부분부터 얼굴의 바깥쪽 라인에 발라 주어 한 번 더 음영을 주었다.

4. 헵번 스타일 메이크업



(그림 25) 실사 이미지 일러스트

1) 메이크업 전 이미지



(사진 23) 메이크업 시술 전

- 피부 : 잡티는 많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어두우며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볼 부위와 입 주위에 여드름이 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썹 : 눈썹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 있는 편이나 꼬리부분의 색이 약간 옅은 편이어서 시술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눈 : 눈은 얼굴형에 비해 작은 편이므로 메이크업 시 기존의 형태보다 커 보일 수 있도록 해 준다.
- 입술 : 입술은 얼굴형에 맞게 적당한 편이므로 테마에 맞게 시술 해 준다.
- 얼굴형 : 달걀형에 가까운 형태이나 살짝 길어 보이므로 이 부분만을 수정해 준다.

2) 메이크업 후 이미지 분석



(사진 24) 메이크업 시술 후

피 부 : 어두운 피부 톤을 맑아 보일 수 있게 기본 피부 톤 보다 두톤 정도 밝은 색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펴 발라 주고 여드름이 난 부위는 컨실러를 이용해 커버해 준다.

아이새도 :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강한 핑크색을 바난 가법의 형태로 발라주고 꼬리 부분과 바난의 원 부위는 핑크색에 보라 색을 섞어 한번 더 발라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해 준 후 보라색을 이용해 다시 한번 언더라인과 바난의 홀 부위를 강조해 주었다. 하이라이트 부위는 밝은 아이보리 색을 이용해 매 꺾 주어 바난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해 주었다. 아이라인은 리퀴드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강하고 진하게 그려주고 꼬리부분은 길게 빼 주어 눈이 시원해 보이면서 커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어 좀 더 강하게 표현해 주었다.

눈 썸 : 눈썹은 산을 강조해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검은 색 새도를 이용해 덧발라 주었다.

입 술 : 입술은 진한 보라 빛 라이너를 이용해 라인을 그려주고

안쪽 부위는 보랏빛이 도는 자주색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고 아래 입술 중앙 부위에만 화이트 펄을
이용해 볼륨감을 살려 주었다.

볼 : 핑크색에 보라색을 섞어 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사선의
느낌으로 발라 주고 브라운 톤의 블러셔로 턱 부위와
이마 끝 부위만을 살짝 발라 주어 윤곽을 수정해 주었
다.

VII. 결 론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아름다워 지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인간 본능의 표출 수단 중의 하나인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로서 남들과는 차별화 된 자아를 중시하는 현재의 사회에서 자신만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이며 이 자아 표현의 수단인 메이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색채이다. 왜냐하면 색은 메이크업에서의 언어이고 유일한 자기 표현방법 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메이크업 속 색채이미지를 분석해 상황에 따른 색채를 제안함으로써 개성 미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 디자인을 유추,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적절한 색채 사용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여러 종류 중 뷰티메이크업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색채의 본질적 특성을 상황별 메이크업 이미지 맵과 그림, 칼라 칩을 통해 제안하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표현 방법을 유추 해 내고 있다.

메이크업의 색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물을 통한 직접 적인 예시가 필요하나 이를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연구자는 실물 데모 사진과 일러스트, 칼라 칩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심리학적인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실제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연구도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인 분야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없는 관계로 기존의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해 결과를 유추해 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메이크업은 얼굴이라는 구조 재를 중심으로 화장

품 즉 색채연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상황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의 표현 속에 내제되어있는 자아표출의 의미 즉 색채 표현 재료를 통한 개성 표현을 정확히 해 내지 못한다면 메이크업을 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에서 색채를 원하는 상황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색채 이론과, 색감 인지 능력 등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며 어떠한 얼굴형에 어떠한 색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미리 파악하고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런 색채 표현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계, 1997
- 김희숙, 「Make-up과 패션」, 수문사, 1996
-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사, 1995
- 김봉인, 「화장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p.25.
- 고을환, 「디자인을 위한 색채 계획」, 미진사, 1987, p.22.
- 모터스라인, 2000
- 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
- 미용학회지,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2000
- 신단주, 「Make-up Artist」, 삶과 문화, 2002
- 신단주, 「Make-up 개성있는 나를 연출한다」, 웅진출판, 1996, p.78.
- 왕석구, 「톡톡튀는 메이크업」, 도서출판 진리탐구, 1999
- 유태순, 「색채학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성화, 2002
- 하병조, 「화장품학」, 청구문화사, 1996
- 정진국, 「색채 : 그 화려한 역사」만리오 브뤼사틴 저, 까치, 2000
- 최영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87.

논문

- 김양순, 메이크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연구, 경산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강은란, 색과 향에 의한 메이크업의 표현형태, 고신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강혜순, 메이크업에 있어 시즌 컬러의 유행 경향분석, 한성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박연희,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연구, 한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허인주, 색채인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외국문헌

- Di Biggse Maxi Meah. Art of Make-up, 1980
- James Laver,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1979
- Kate de Castelbajac, The face of the century, T&H,1995
- Marian L, Davis, Visual desing in dress, prentice-Hall, Inc, 1980
- Muller, Art and fashion, 2000

기타

www. naver. colover.colc

<http://members.tripod.lycos.co.kr/eshow/makeb.htm>

http://www.color21c.co.kr/color_power/4seasons_color/4seasons_color.htm

<http://www.openedu.co.kr/opendata/skin/makeup1/1-5.html>

BAZAAR, 2003, 5

ELLE KOREA, 2001, 3

ELLE KOREA, 2002, 10

ELLE KOREA, 2003, 5

ESTETICA, 2003, 2~4

MADAME FIGARO, 2000, 3

VOGUE, 2003, 5